

제5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방안 모색

- 일시 : 2002. 11. 7(목), 14:00 ~ 16:40
- 장소 : 제주도교육박물관 강당
- 주최 : 통 일 부
- 주관 : 제주도교육청
-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통 일 부

목 차

I. 진행순서	5
II. 주제 발표문	7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방안 모색	9
(차우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III. 토론자 발표문	31
1.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활성화방안	33
(김홍선, 하원초등학교 교사)	
2. 중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1
(김영민, 제주중학교 교사)	
3.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	67
(이광일, 오현고등학교 교사)	
4. 고등학교 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모색	79
(황미나, 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IV. 부 록	93
1. 통일교육지원법	95
2.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97

진행순서

- 14:00-14:05 국민의례
- 14:05-14:25 개 회 사 : 이봉조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 14:25-14:30 축 사 : 김태혁 (제주도 교육감)
- 14:30-15:10 주제발표 : 차우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 15:10-15:25 토 론 : 김홍선 (하원초등학교 교사)
- 15:25-15:35 휴 식
- 15:35-16:20 토 론 : 김영민 (제주중학교 교사)
이광일 (오현고등학교 교사)
황미나 (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 16:20-16:40 보충토론 및 플로어 질의응답
- 16:40 폐 회
- ◆ 사 회 : 김순관 (제주도교육청 장학사)

주제 발표문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
(차우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

차 우 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 I. 학교통일교육의 의미와 쟁점
- II.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특징
- III. 학교통일교육의 목표
- IV.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 V. 학교통일교육의 지도방법
- VI.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I. 학교통일교육의 의미와 쟁점

1. 통일교육의 정의

(1)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

※ 통일 = 법적·제도적 통일 + 사실상의 통일

(2) 통일교육은 암기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이해에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 능력 배양 교육'이라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1999년 6월 서해에서는 연평해전이 일어났는데도 동해에서는 금강산 관광선이 운행되었던 사실이나 2001년 6월 북한민간선박의 영해침범사건 등에 대해서 그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구체적 사실을 놓고 어떻게 대처한 것이 바람직하였겠는가 등을 함께 생각해 보는 이해교육 내지는 토론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2. 통일교육의 제 쟁점

최근 학교교육현장에서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큰 분수령으로 하여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과거와는 다른 통일교육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강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의 모습에 대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둘째, 민족자결이라고 하면서 미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셋째, 우리 사회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북한과 대화를 통해 통일논의를 하자는 것인가,

넷째, 남북이 화해 협력하려는 마당에 땅굴전학 등 안보교육을 계속해야 하는가,

다섯째, 청소년의 통일무관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여섯째,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교육 등 통일교육을 대신하려는 교육노력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일곱째, 아직도 통일교육은 정부정책의 홍보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닌가 등

3. 통일교육의 제 쟁점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검증되지 않은 각종 교육자료들이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가치나 검증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다소간의 인식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2) 교사들의 학생들의 통일외지 함양과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부응하는 민족의식을 배양하는 측면에서 다양하고도 자율적인 수업구성과 진행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교육의 체계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통일문제 및 북한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토대가 시급히 형성되어야 할 시점이다.

예를 들면 북한이 분명히 남침한 6.25전쟁을 민족내부의 다툼으로 인식하는 상태에서 수업내용을 구성한다거나, 북한에 대한 객관적 비판은 전혀 하지 않고 우리와 미국만이 과거의 자세를 반성하고 북한에 대한 화해협력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논리 전개는 우리 사회 내의 갈등만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하겠다.

(3) 현재의 북한을 언제나 변하지 않을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모습은 줄여나가고 동포의 모습은 키워나가는 실천적 노력이 남북관계에서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4) 남북분단사 반세기를 돌아보면 6.25전쟁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초기의 강력한 노력동원체제를 바탕으로 전쟁으로 황폐해진 경제를 우리보다 빨리 복구하면서 70년대 초까지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6.25의 아픈 경험을 가진 그 당시의 국민정서로서는 안보교육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70-80년대의 국력각축시기를 넘어 우리 체제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확실한 우위를 보이면서 안보교육만의 또는 안보교육중심의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민족공동체 교육과 화해협력교육 등에 통일교육의 중심 위치를 내주게 되었다.

(5) 안보교육은 군사적 대결상태에 있는 남북 간의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 전체의 안전을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교육이다.

(6) Peace Keeping → Peace Making

금강산 관광의 실현으로 북한의 최전방 잠수함기지가 후방으로 이동한 것이나, 앞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동서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연결된다면 이것이 바로 적극적 안보의식의 모습이자 안보와 화해협력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구현되는 결과라 할 것이다.

(7) 북한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 엄존하는 상태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확고한 방어력으로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낮추고 휴전선에서 상호비방을 중지하는 등 적으로서의 모습을 줄여나가는 한편, 금강산을 군사적 요충지에서 화해협력의 장소로 바꾸어 나가는 것과 같이 함께 사는 동포로서의 모습을 키워나가는 입체적 동태적인 지혜를 갖추는 것이라 할 것이다.

(8)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땅굴견학을 통한 안보교육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이러한 남북관계와 북한에 대한 종합적 인식의 틀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른 교육만 하려는 경향을 탈피하지 못한데서 나오는 견해로 볼 수 있다.

땅굴현장 견학교육도 이 교육을 통해 북한의 안보위협은 아직도 있을 수도 있다는 인식과 함께 안보의식을 되새기는 한편, 이에 머물지 말고 남북이 이러한 소모적 긴장조성을 하지 않고 앞으로는 서로 좋게 화해 협력하는 것이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한민족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는 의미를 도출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독일이 과거 2차 대전 때의 유대인 학살현장을 보존하고 지금의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9) 2000년 6월 15일 남북의 정상이 합의한 남북공동선언 제1항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주적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민족만을 뜻하는 '폐쇄적 자주'와 우리 민족이 주인이되 관계국들의 이익도 균형 되게 고려하는 '열린 자주'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우리 주변에서 통일문제를 다루면서 외세 배격적인 구호를 우선하는 일부의 현상은 우리 모두가 심각히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10) 우리가 통일이라는 민족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역할분담 틀을 잘 마련해서 주변국이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설득해 나가야 하며, 상호이해가 대립되는 문제(일본 역사교과서, 6.25 양민피해)들은 사안별로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중국적으로는 열린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지역평화의 조정자', '지역번영의 주창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II.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특징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초, 중등 도덕과 및 사회과에 공식적으로 제시된 통일관련 제재 및 하위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표-1> 및 <표-2>에서와 같다.

<표-1> 도덕과의 학년별 통일 관련 제재 및 하위 내용 요소

학교급 / 학년	제재명	하위 내용 요소
초등학교 3학년	0 분단현실과 통일 필요성 인식	- 남북 분단의 현실과 그 원인 - 이산 가족의 아픔 등 민족 분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 민족의 동질성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 민족 통일을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가짐
초등학교 4학년	0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 국가안보의 의미와 중요성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안보의 여러 측면과 그에 따라 노력해야 할 점들 - 국가안보와 평화 통일, 국가 발전과의 관계 - 일상생활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들
초등학교 5학년	0 평화 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 평화 통일의 의미와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까닭 - 평화 통일을 이룬 사례와 그 교훈 -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적절한 방법들 - 일상 생활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과 이를 실천하려는 다짐
초등학교 6학년	0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민족 통일의 의지	-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었을 때의 조국의 미래 모습 - 우리의 통일 방안의 당위성과 합리성 - 통일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 평화통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과 그 실천 방안
중학교 2학년	0 남북 통일과 통일 실현 의지	- 통일의 의미 - 통일의 당위성 - 다른 나라의 통일과정 -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가짐
고등학교 1학년	0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 민족 분단의 원인 - 민족 분단의 과정
	0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의 과제	- 우리의 대내외적 통일 환경 - 남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 통일을 위해 해야 할 일들
	0 민족 공동체의 변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	- 민족 공동체의 당면 과제와 해결 -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 - 세계 속의 바람직한 한국인상

<표-2> 사회과의 학년별 통일 관련 제재 및 하위 내용 요소

학교급 /학년	제재명	하위 내용 요소
초등학교 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새로운 사회, 문화로 가는 길 0 민주 시민의 권리와 준법정신 0 통일과 민족의 앞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전쟁에 관한 사진 자료와 이야기를 통해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알아보고, 민족 통일의 당위성에 대하여 토의한다. - 남북한간의 대치 상황, 역사상의 외침 등의 사례를 통하여 국방 의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토의한다. - 우리나라의 분단 원인과 그 후의 남북 대결과정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 남북 회담이나 이산 가족 찾기 등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이해한다. - 통일 조국의 미래상을 생각해 보고, 앞으로 통일에 대비하여 힘써야 할 점에 대해 토의해 본다.
중학교 1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북부 지방의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륙의 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부 지방의 위치 특성을 살펴보고, 국토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 북부 지방의 중심지 관서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화 이후 토지제도와 농업 방식의 변화를 설명하고, 최근 북한이 당면한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하여 조사한다. · 북한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고, 식량 부족의 원인을 알아본다. - 문호를 개방하는 관북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개방 정책을 파악하고, 남북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 협력에 대해 조사한다. · 남북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교역품과 교역량의 추이를 조사한다.
중학교 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현대 세계의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세계 대전과 전후의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이루어 가는 과정을 이해하며, 러시아 혁명이 이후의 세계 역사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 제2차 세계 대전과 전후의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후 냉전 체제가 형성되고 변화되어 온 과정을 파악하고 백지도에 표시한다. - 현대 사회의 변화와 시민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권의 몰락 및 자본주의 체제의 확대와 관련하여 국제 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설명한다.

학교급 /학년	제재명	하위 내용 요소
중학교 3학년	0 지구촌 사회와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민족의 발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분단의 배경과 분단 이후의 남북 관계, 그 리고 화합과 협력을 위한 노력을 이해하고 민족 통일의 방안을 알아본다. · 국토 통일이 북방 진출, 대외 교역로 확보, 개발 잠재력의 신장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를 파악한 다. · 북한 주민과 남한의 언어, 의식, 생활 풍습 가운 데 동질적인 것과 이질화되어 있는 것을 비교하 고, 이질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해 본다. -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민족은 줄기찬 독립 운동과 연합국의 승리 로 8·15광복을 맞이하였으나, 곧이어 38도선을 경계로 미소 양국의 군대가 주둔함으로써 국토 가 분단되었음을 이해한다.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결정된 신탁통치안 에 대한 문제로 민족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이 반탁과 찬탁으로 분열되면서 좌우 대립이 본 격화되었음을 파악한다. ·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 공산군의 남침을 격퇴시 켰으나, 결국에는 휴전이 성립되어 오늘날까지 민족 분단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음을 이해한다. · 처음에는 신탁통치에 반대했던 공산주의자들이 곧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을 받아들여 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 김구와 김규식에 의해 전개된 남북협상의 노력 이 미소간의 냉전체제 하에서 실현 가능한 것이 었는지 추론해 볼 수 있다. - 민주화 운동과 통일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전쟁 이후 북한은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 면서 유일 사상 체제를 확립하였음을 의미한다. · 정부는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 등 평화 통일 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였고, 그 결과 1991년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 하게 된 것을 이해한다.
고등 학교 1학년	0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미래와 대응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발전과 한반도의 통일, 정의·복지 사회의 확립과 민족 문화 발전 등 질적인 발전을 위한 한국의 과제를 파악한다.

우리나라 초, 중등학교에서의 통일관련 교육의 특징을 교육과정 시기별로 통일정책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표-3>에서와 같다.

<표-3> 교육과정별 통일 정책의 특징

교육과정	고시 연도	통일 정책	내용 특징
1차	1955	북진 통일	반공교육 멸공교육
2차	1963	선 건설 후 통일	승공교육
3차	1973	평화 통일	반공교육
4차	1981	민족화합 민족통일방안	지공교육
5차	1987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통일·안보 교육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6차	1992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민족 화해·협력 교육 민족 동질성 회복 교육
7차	1997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대북화해협력정책)	통일 대비 교육

Ⅲ. 학교통일교육의 목표

1. 민족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며 이를 열망할 줄 아는 인간

통일은 남북한 구성원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열망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시작도 남북한 주민들이 민족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며 이를 열망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 많은 조사 연구에 의하면, 통일의 당위성과 관련하여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과 통일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국민들 사이에는 어느 덧 통일에 대한 무관심 내지 통일 기피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지나치면 통일보다는 오히려 분단의 고착화를 희망하게 될 수도 있다.

2. 통일에 따른 다소의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가진 인간

통일이라는 민족 최대의 당면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구성원 개개인들은 다소의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에도 그 불이익과 희생은 개개인에게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 장기적으로는 나를 포함한 민족 공동체의 영원한 이익과 발전에 주요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이 기본적으로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학습자들에게 공동체주의이론에 입각한 통일관을 꾸준히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은 먼 과거 속에서만 같은 민족이고 겨레일 뿐 지금은 전혀 다른 문화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습자들에게 '남북한은 오랫동안 같은 언어, 문화, 사상, 역사, 그리고 삶의 터전을 가진 한 민족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지금은 남북한간의 차이와 간격을 논의하는데 급급할 뿐,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내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모색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많다. 이는 과거 역사 속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현재의 삶이나 미래의 한국인상을 설정하여 탐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예로, 어른을 공경하거나 훈훈한 인정을 지니고 있는 것, 가족에 대한 애착, 성실한 근로 정신 등을 들 수 있다.

3. 남북한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남북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

상호 이해와 존중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객관적 이해는 사실적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을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한 예로, 북한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식량 부족으로 기근이 심해 일부의 사람들이 아사(餓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춰 북한에 대한 방송으로 내보낸다면, 이것은 북한을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북한이 진정으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북한인들의 삶을 전체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북한의 어려운 식량 사정과 함께 북한 주민들 간의 정적(情的)인 인간 관계나 공동체 의식 등도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4.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

남북한간에는 상호 비방과 흠집내기 보다는 각기 지니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덮어줄 수 있는 포용력이 요구된다. 남북한간에는, 독일의 사례와는 달리, 이미 동족간 상잔(相殘)이라는 6·25전쟁의 아픈 상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 화해와 협력, 더 나아가 평화 통일은 요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도 민족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고 달래면서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 국민 내부 간의 갈등(흔히 '남남갈등'이라고도 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

탈북자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한 학생들이 그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면서 처음 수일간은 자신들에게 관심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차 무관심해지고 무시하는 경향까지도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이는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낙후된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북한 주민들은 '2등 국민'이라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집단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 큰 사회 혼란과 갈등의 원천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교육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을 키워내야 한다.

5. 통일을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룩하려는 신념을 가진 인간

자기 주변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조그만 문제와 갈등에 대해 힘과 폭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학습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집단이나 국가 간의 갈등

에 있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힘과 폭력으로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니버(Reinhold Niebuhr)의 말처럼, 개인은 도덕적이라도 집단은 비도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하나의 법과 제도로서 통일된 국가 체제를 실현하게 된다면, 상이한 문화와 이념 및 가치관으로 인해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문제를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고 남북 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갈등을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프로그램이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¹⁾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성격을 이해하는 인간 (열린 민족주의를 이념적 토대로 한 통일한국의 미래 설계 필요)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남북한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 노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이 주변 강대국들 간의 첨예한 이해 관계 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통일된 국가가 그들의 국가 이익에 해(害)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 각자가 통일 한국을 주도해 나갈 주체로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내고, 지금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한 예로, 모의 정상 회담을 개최하여 자신이 남한의 대표라고 했을 때, 북한의 정상과 주변 강대국들의 정상들에게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 시연해 보게 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성격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에서는 2000년부터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의 민주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와의 협력하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번역하여 통일교육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에서도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7. 냉전적 사고 방식['red complex'와 'blue complex']을 극복하고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인간

남북한간에는 6.25전쟁을 겪은 이래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주민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우리는 'red complex'와 'blue complex'라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맹종적 수용 태도를 취하는 반면, 상대방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이고 감정적인 거부 반응을 나타내기 쉽다. 그런데 이러한 냉전적 사고 방식 및 이데올로기적 태도를 가지고는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화해와 협력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교육을 통해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적 편견에서 벗어나서, 각각의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남북한 주민들의 삶이 특정 이데올로기에 종속되는 삶이 아닌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활용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IV.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1. 통합적 접근

학습자의 정서, 인지, 행동(실천)이 통합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을 지도해야 한다. 통일교육은 감정적으로 학습자의 마음에만 호소해서는 곤란하며, 그들의 머리와 손과 발을 함께 흔들 수 있어야 의미 있는 학습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²⁾.

2. 전체론적 접근

통일(統一)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체들의 독자적인 특성을 무시하는

2) 학습자가 활동이나 실천을 통해서 학습하게 될 때 피상적 이론에서 벗어나 그 이론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고 이를 실제 세계에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거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확일 내지 균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들의 독특한 특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전체성 속에서의 유기적인 통합 내지는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흡수된 쪽에서는 열등감을, 흡수한 쪽에서는 지나친 우월감을 지니게 되어 결국 통일은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게 된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가 필요)

3. 조화론적 접근

통일의 당위성을 말할 때, 의무론적 접근과 목적론적 접근이 조화될 수 있어야 한다. 요즘 학생들은 물질주의적, 개인주의적, 현실주의적 성향이 강하므로 당위론적인 주장만으로는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당위론적 주장과 더불어 분단비용이나 통일효과 등의 구체적인 공리주의적인 접근이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4. 균형적 접근

반공 교육기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기술은 늘 이념적 세계로 얼룩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을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도 균형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 때문에 우리의 통일교육은 다소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제 통일을 위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사실들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적극적 접근

“북한의 변화되는 만큼만 우리도 변화한다.”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6. 다중적 접근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흥미와 발달 단계를 고려하고, 학습자의 다양한 지능을 자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7. 생활관련 접근

통일교육은 학습자들의 생활과 관련된 소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 예로, 요즈음의 학생들의 가치 지향은 상당히 현실적이며 사실적이다. 자신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에는 흥미를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도 무엇보다 학생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을 시켜야 한다.

8.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

우리가 의도하는 균형 있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일에 기반이 되는 다양한 교육의 관점이나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단순한 정치교육만이 아니라 인간주의 교육, 민주시민 교육, 공동체 교육, 평화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이문화) 이해교육, 배려윤리 교육 등을 포함하는 좀더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9. 과정적 접근(process approach)

통일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통일교육에 있어서는 과정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일은 이분법적 개념이 아닌 '몇 % 달성되었다'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통일교육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되며, 정치 체제 및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넘어서서 사회 문화적, 역사적 접근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다 통일의 주체로서 그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통일교육에서 과정적 접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남북한 사회의 각 분야에 대한 세부 요소들을 작성하고, 각 요소들에 대한 수준 구분과 함께 점수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통일 지수(U.Q.)'라고 한다면, 통일 지수를 일정 부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사회 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하고, 그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어야만 하는지가 분

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통일에 대한 전망은 단지 점성술이 아닌 과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의 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측해 나갈 수 있고, 통일의 비용도 최소화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0. 자율적 접근

학교 통일교육은 교육 주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내지 자율성 보장에 기초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이 의도적으로 북한이나 공산주의를 찬양하고자 한 경우가 아니라면, 북한 및 통일교육에 관련해 그들의 교수-학습 활동에 대해서는 자율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과거 안보 및 반공을 중시하던 시절에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온 북한이나 공산주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척도만을 가지고 다양한 논의를 통제했고 지나친 정치적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 교육 주체들이 북한 이해 및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하기를 기피하고 무관심해지기까지 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한 예로, 초등학교 한 교실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통일의지를 키워주기 위해 교사가 미술시간에 학생들에게 통일포스터를 그리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통일 포스터를 그렸고, 그 중에 잘된 몇 작품을 선정해 학급 뒤의 게시판에 한 나절 전시해 두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 그림 중에는 한반도 모양의 그림 속에 대한민국의 태극기와 북한의 인공기가 나란히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학교 순시중에 그 그림을 발견한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는 담당 교사에게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였고, 결국 그 그림은 잠시 후에 게시판에서 떼어내었다. 그 일을 계기로 그 교사는 통일교육에 대해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통일관련 내용이 교과서에 나오면 앵무새처럼 핵심 내용을 강의식으로 간략히 정리하고 그냥 넘어간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의 자율성 보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 그림 속에 인공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red complex], 그 그림이 어떤 의도로 그려졌는가를 알아보고 그 의미

를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럴 경우 그런 활동은 오히려 학교 통일교육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11. 연계적 접근

학생들은 학교 이외에 가정, 언론 매체, 사회 기관 등 다양한 매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에서보다도 언론 매체에 의해 그들의 대북관이나 통일관을 지니게 된다고 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TV를 비롯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약 90% 정도의 북한 및 통일 관련 정보를 얻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아동들의 정치에 대한 가치와 태도 형성에 있어서는 부모의 영향을 상당한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학교 통일교육은 다른 매체, 특히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속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쟁점 및 사례 중심 접근

학교 통일교육도 사회 통일교육과 마찬가지로 원론적 접근 못지 않게 현안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 예로, 남북 교류 및 협력 과정에서 나타났던 긍정적 및 부정적 사례라든지, 일상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례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 중심의 접근은 통일 문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아울러 기존의 경험 사례들에 대한 범례 학습을 통해 발생 가능한 사례들을 예측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V. 학교통일교육의 지도방법

구 분	통일교육지도방법	
○ 집단토의 방법	- 최적방안 찾기(PMR) - 브레인스토밍	- 유비토의 - 마인드 맵
○ 집단탐구 활동	- 직소우	- 집단 탐구조사 발표
○ 발표하기	- 확인하기	- 이야기하기
○ 자료를 통한 통일/북한이해 하기	- 신문활용하기(NIE) - 광고나 만화 활용하기 - 디스코그래피	- 북한 문학작품 활용하기 - 북한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에 대한 감상문 쓰기
○ 인터넷 활용 방법	- 전자우편 활용하기 - 전자게시판 활용하기	- 정보사냥대회
○ 게임을 통한 통일교육	- 북한 낱말 기억하기 - 통일주제 4행시 만들기 - 백지도 게임	- 십자말(퍼즐) 풀이 - 판놀이 - OX 퀴즈
○ 체험학습	- 남북한 학생 교류 (스포츠, 서신 등) - 북한이탈주민 인터뷰하기 - 북한 생활 체험하기 - 현장 견학하기	* 간접체험학습 · 시뮬레이션 · 역할놀이 · 문화이해지

VI.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1. 표준 통일교육 교육과정안의 마련

통일교육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통일교육 교육과정(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절실한 과제이다. 통일교육의 성격과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정리하는 일은 통일교육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진한 편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정부가 표준 통일교육 교육과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흡수통합을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비추어져 남북 관계를 어렵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일지도 모른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통일교육 문제는 그 동안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어서 이 문제를 잘못 건드려 정치적으로 곤혹을 치르게 되니 이 문제를 피하고 보자는 교육 전문가들이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통일교육은 연령, 직업, 성별, 학력 등에 따른 차별화된 통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학문 분야별로 내지 교과별로 통일교육을 어떻게 역할 분담하여 실시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가 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교과간, 학년간 내용 중복이 심하고,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통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2. 범교과를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양성 교육과정 마련

통일교육은 과거에 도덕과와 통합 사회과를 중심으로 통해 정치 이데올로기적 통일교육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통일교육이 정치 이데올로기적 접근 위주에서 탈피해 사회 각 분야에서의 통합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과목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즉, 통일교육은 이제 일부 교과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범교과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학제적인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 교과에서 실시할 수 있는 통일교육 내용이나 방법들을 새롭게 정립하고, 일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마련하는 일이 매우 시급해지고 있다.

또한 범교과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에서 통일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교원이 양성되어야 하는데 교원양성 프로그램에 통일교육 관련 강좌들이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다.

3. 재량활동을 이용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마련

교과를 통한 통일교육도 중요하지만 교과를 초월하여 통일만을 위해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재량활동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통일교육이 특정 가치를 학생들에게 맹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여러 통일 문제를 스스로 혹은 집단 활동을 통해 이해하고 탐색할 줄 아는 학생을 양성하는 자율적인 교육이라고 할 때, 특히 통일교육을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해 나가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럴 때 학생들은 더욱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추종자로서만이 아닌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4. 통일교육 연구활동에 대한 적극적 예산 지원 (통일교육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임)

통일교육은 정부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민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통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의 통일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통일교육 관련 단체 활동은 개인의 영리와는 관련이 적으며, 국가·민족애 및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사회 봉사 활동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그 운영에 있어서도 인적 자원 확보나 재원 조달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통일교육지원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하는 여러 조치를 착실하게 모색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사이버를 활용한 통일교육 자료 센터의 특화 및 네트워크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사이버 통일교육은 각종 언론사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올해에는 상당히 궤도에 올라오고 있

는 느낌이다. 이러한 사이버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관심은 전 국민에게 확산시키는 데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신세대들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 통일교육은 각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이들간에 상호 보완성이나 연계성이 부족하고, 각각의 사이버 통일교육이 다른 것과 차별화 되는 특화(特化)가 부족한 형편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각 기관들 간에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 기관의 특화를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6. 통일교육 컨설팅제 운영 및 통일교육 프로그램 질 관리

특정 기관에서 통일교육에 관한 내용이나 방법과 관련하여 조언을 요청할 경우, 그 기관을 통일교육 전문가(팀)이 방문하여 현재의 통일교육에 대해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컨설팅 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 컨설팅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 자료들을 개발하였는데 그 질(質)에 대해서는 의견이 매우 분분한 실정이다.

최근 수년간은 과거의 반공교육 자료 외에 화해와 협력을 유도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들이 워낙 부족했었기 때문에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여 자료를 개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통일교육 자료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좀 달라졌다고 보여진다.

양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자료들이 얼마나 질 높고 의미 있는 자료인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체제를 마련하고 전문가를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7. 상설적인 통일교육 협동 학교 계획(ASP) 운영

통일교육 연구학교 내지 시범학교 운영은 오래 전부터 교육인적부와 통일부,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의 지원 하에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통일교육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운영은 매우 제한적인 규모로 이루어져 왔고, 시기적으로도 1-2년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연구 결과가 매우 전시적인 효과에 국한되며, 그 효과마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보다는 통일교육에 의욕적이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쌓아 가는 학교를 지역별로 10여 개씩 선정하여 통일을 위한 ASP(Associated School Project; 협동학습계획)운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보다는 그 규모에 있어서 10배 이상으로 하여 늘리고, 예산 지원은 실제 통일교육 활동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단가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1-2년 내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가 그런 활동을 지속하는 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우수한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주변 학교에게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8. 대학수학능력시험(약칭 대수능) 및 각종 모의고사에서의 출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특히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는 대수능 및 각종 모의고사에 통일 문제가 출제되었는지의 여부가 통일교육의 활성화에 현실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통일문제가 최소한 1문항 이상 대수능 시험에 출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의지와 제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올해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고사 문항을 본인이 분석해 본 결과 통일교육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통일교육을 아무리 학교 현장에서 강조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단지 메아리로 사라져 버릴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수능 및 각종 모의고사에 통일 문제가 1문항 이상 반드시 출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만 한다.

cosmos@kice.re.kr

토론자 발표문

1.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활성화방안
(김홍선, 하원초등학교 교사)
2. 중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영민, 제주중학교 교사)
3.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
(이광일, 오현고등학교 교사)
4. 고등학교 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모색
(황미나, 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김 흥 선
하원초등학교 교사

- I. 새로운 학교통일교육의 필요성
- II. 초등학교 통일교육 지도에 대한 실태
 - 1. 실태분석
 - 2. 실태분석에 대한 논의
- III.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 1. 바람직한 학교통일교육의 개선방향
 - 2.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 3. 학교통일교육의 기본방향

I. 새로운 학교통일교육의 필요성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분단된 조국이라 할 수 있다. 한 핏줄로 이어온 우리 민족이 1945년 해방과 함께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지난 반세기 동안 적대적 관계로 지내오면서 남은 것은 고통과 상처, 이질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에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진행되어온 남북대화에서 국민들은 기대를 가졌다가 실망만 되풀이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 역사에 굵은 획을 그어 놓았다. 서로 적으로 여기며 대결과 반목의 대상이었던 두 정상이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회담에서 두 정상은 자주적인 통일문제 해결,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대한 공통성 인정과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상호 신뢰 증대 등에 대해서 서로 합의했다. 이것은 55년 만에 막혔던 물길이 탁 트이는 중대사였다. 따라서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관계의 급속한 변화와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남북한간의 대결·경쟁보다는 화해·협력적인 방향으로 대화가 진전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에 대한 기대감과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하였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꾸준히 지속되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에 대한 지원과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서해교전으로 나타난 긴장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가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북한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통일이 멀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예상외로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으므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21세기를 살아 갈 현재의 어린이들은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통일을 준비하도록 하여 그동안 벌여졌던 불신과 이질성을 하나씩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교육도 시대적 요구에 맞게 그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도덕교과서에는 “반공, 반북”이라는 말 대신에 남북한 “화해·협력”, “평화공존”, “통일”이라는 내용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교과서에는 남북정상회담이 화보로 실렸다. 2000년부터 “통일”이라는 교사용 교재가 공급되었으며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에게 20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통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일선교사들이 어려움은 많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

이며 어느 정도까지 다루어져야 하는지 막막한 것이다. 통일교육을 위한 시수 확보가 되지 않고 제한된 자료와 교사 자신이 확고한 방향이 서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은 계획으로 그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통일교육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불안정하게 변화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거나 정권이 교체될 경우 다시 교육내용이 달라져 일관성 없는 교육으로 학생들이 바른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정보화 시대에 선택된 내용으로 획일적인 교육을 통하여 통일의 당위성만을 가르친다면 마치 반공교육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을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북한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태도와 의식을 심어주어 훗날 통일 이후 사회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극복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초등학교 통일교육 지도에 대한 실태1)

(제주도 초등학교 교사의 통일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1. 실태 분석

1) 6·15 정상회담 이후의 통일교육

6·25 정상회담 이후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① 통일교육의 필요성 ②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 ③ 통일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교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았다.

(1) 6·15 정상회담 이후 통일 교육의 필요성

<표II-1> 6·15 정상회담 이후 통일 교육의 필요성

응답내용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지는 않다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계
응답자 수	273	28	0	5	306
%	89.2	9.2	0	1.6	100

1) 김홍선(2002), "남북 정상회담 이후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 논문 기초 자료로 2001년 12월 제주도내 초등학교 교사 306명에게 설문지를 통해 조사 연구.

(2) 6·15 정상 회담 이후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

<표Ⅱ-2> 6·15 정상 회담 이후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

응답내용	한 핏줄 한 민족이므로	남북한 이질성이 심화되지 않기 위하여	통일 후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계
응답자 수	76	146	45	6	273
%	27.8	53.5	16.7	2.2	100.0

(3) 6·15 정상 회담이후 통일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

<표Ⅱ-3> 6·15 정상 회담이후 통일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

응답내용	통일된 후에 하여도 충분하다.	통일이 된 후에 잘 적응할 수 있으므로	우리 남한만 하여도 소용이 없으므로	달리 해야할 교육이 많으므로	계
응답자 수	7	12	4	5	28
%	25.0	42.9	14.3	17.8	100

2) 통일교육 지도 시간

통일교육 지도 시간과 주로 이용하는 시간에 대하여 ① 연간 통일교육 지도 시간 ② 2001년도 통일 교육 실제 지도 시간 ③ 통일교육을 주로 이용하는 시간에 대하여 교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조사하여 보았다.

(1) 연간 통일교육 지도 시간

<표Ⅱ-4> 연간 통일교육 지도 시간

응답내용	0~5시간	6~10시간	11~15시간	15~20시간	20시간 이상	계
응답자 수	95	127	34	27	23	306
%	31.0	41.5	11.1	8.8	7.5	100

(2) 2001년도 통일교육 실제 지도 시간(2001년 12월 말 현재)

<표Ⅱ-5> 2001년도 통일교육 실제 지도 시간(2001년 12월 말 현재)

응답내용	0~5시간	6~10시간	11~15시간	15~20시간	20시간 이상	계
응답자 수	127	126	24	19	10	306
%	41.5	41.5	7.8	6.2	3.2	100

(3) 통일교육을 지도하는 시간

<표 II-6> 통일교육을 지도하는 시간

응답내용	도덕(바른생활)	재량활동	특별활동	기타	계
응답자 수	201	89	7	9	306
%	65.7	29.1	2.3	2.9	100

3) 교사용 「통일」 교재의 활용과 특징

교사용 「통일」 교재의 활용과 두드러진 특징, 개선점 등에 대하여 ① 교사용 「통일」 교재의 활용 정도 ② 「통일」 교재를 많이 활용하는 시간 ③ 「통일」교재를 잘 활용할 수 없었던 까닭 ④ 「통일」 교재를 교사용만 지급한 것에 대한 교사의 생각 ⑤ 「통일」 교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⑥ 현재의 「통일」 교재와 과거 통일 관련 교재와의 차이 ⑦ 「통일」 교재 내용 중 더 보완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하여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1) 교사용 「통일」 교재 활용 정도

<표 II-7> 교사용 「통일」 교재 활용 정도

응답내용	늘 활용한다	가끔 활용한다	활용해 본적이 없다	계
응답자 수	36	217	53	306
%	11.8	70.9	17.3	100

(2) 「통일」 교재를 많이 활용하는 시간(서술형)

<표 II-8> 「통일」 교재를 많이 활용하는 시간(서술형)

응답내용	도덕(바른생활)	재량활동	국어	아침활동	행사	계
응답자 수	20	16	6	6	5	53
%	37.7	30.2	11.3	11.3	9.5	100

(3) 「통일」 교재를 잘 활용할 수 없는 이유

<표 II-9> 「통일」 교재를 잘 활용할 수 없는 이유

응답내용	활용할 시간이 없어서	다른 자료를 이용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내용이 좋지 않아서	계
응답자 수	122	130	16	2	270
%	45.2	48.1	5.9	0.7	100

(4) 「통일」 교재를 교사용만 지급한 것에 대한 생각

<표 II-10> 「통일」 교재를 교사용만 지급한 것에 대한 생각

응답내용	지금처럼 교사용만 지급하여도 통일교육을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전 어린이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통일교육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여도 상관없다.	계
응답자 수	57	225	24	306
%	18.6	73.5	7.8	100

(5) 교사용 「통일」 교재의 특징

<표 II-11> 교사용 「통일」 교재의 특징

응답내용	남북한생활상 비교	북한생활 비교	주제별학년 수준에 맞게	흥미 있는 다양한 자료	민족 동질성 및 통일에 대한 접근	현실성 부족	계
응답자 수	21	19	12	16	21	7	96
%	21.8	19.8	12.5	16.7	21.9	7.3	100

(6) 현재 「통일」 교재와 과거 통일 관련 교재와의 차이(서술형)

현재의 「통일」 교재와 과거 통일 관련 교재와의 차이는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과 '비방·획일 교육'에서 '민족 동질성 및 통일에 대한 접근'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교육'으로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7) 「통일」 교재에서 더 보완해야 할 내용(서술형)

<표 II-12> 「통일」 교재에서 더 보완해야 할 내용(서술형)

응답내용	구체적인 내용	북한의 현실적인 생활내용	CD자료 및 시청각자료 제공	동질성 확대	객관성 유지	계
응답자 수	20	16	16	13	12	77
%	25.9	20.8	20.8	16.9	15.6	100

앞으로 「통일」 교재 내용을 더 보완한다면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즉 이산가족, 통일의 필요성, 통일후의 생활 등과 지도 자료, 민족의 동질성(역사, 미풍양속, 전통문화 등)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4) 학교 통일교육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에 대하여 ① 교사의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② 통일교육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자료 ③ 통일교육을 할 때 염두에 두는 점 ④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사용하는 수업모형 ⑤ 어린이

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⑥ 학교 통일교육 행사 실시 횟수 ⑦ 통일교육 행사 실시 시기 ⑧ 그 밖의 통일교육 행사 등에 대하여 교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1)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표 II-13>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응답내용	매우 높은 편이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관심이 없다	계
응답자 수	10	72	199	25	306
%	3.3	23.5	65.0	8.2	100

(2) 통일교육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자료

<표 II-14> 통일교육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자료

응답내용	통일교재	신문·잡지	인터넷·CD	평소 아는 대로	계
응답자 수	67	87	84	68	306
%	21.9	28.4	27.5	22.2	100

(3) 통일교육 지도 시 염두에 두는 생각

<표 II-15> 통일교육 지도 시 염두에 두는 생각

응답내용	우리 민족의 공통성	남북한 생활상 비교	민주주의 우월성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	이산가족의 슬픔	평화통일	계
응답자 수	147	55	21	6	31	46	306
%	48.0	18.0	6.9	2.0	10.1	15.0	100

(4)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자주 사용하는 수업 모형

<표 II-16>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자주 사용하는 수업 모형

응답내용	교사 주도의 설명식	어린이 중심이 발표 및 토의 학습	역할놀이 학습	과제 조 사 학습	시청각 자료 활용 학습	기타	계
응답자 수	121	56	4	33	88	4	306
%	39.5	18.3	1.3	10.8	28.8	1.3	100

(5) 반 어린이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표 II-17> 반 어린이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응답내용	매우 높은 편이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편이다	별 흥미 없이 참여한다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로이다	계
응답자 수	8	192	55	51	306
%	2.6	62.7	18.0	16.6	100

(6) 통일교육에 대한 1년 동안 행사 총 횟수

<표 II-18> 통일교육에 대한 1년 동안 행사 총 횟수

응답내용	0~1회	2~3회	4~5회	6회 이상	계
응답자 수	123	171	11	1	306
%	40.2	55.9	3.6	0.3	100

(7) 연간 통일교육에 관련된 부문별 행사실시 횟수

<표 II-19> 연간 통일교육에 관련된 부문별 행사실시 횟수

응답내용	응변대회				견기·행진대회				그리기·포스터 그리기				글짓기				현장체험학습				기타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실시횟수	83	218	5			271	35				21	269	14	2		36	253	15	2		237	65	4			295	10	1		
%	27.1	71	1.7			88.6	11.4				6.9	87.9	4.6	0.6		11.8	82.7	4.9	0.6		77.5	21.2	1.3			96.4	3.3	0.3		

(8) 통일관련 행사 개최 시기

<표 II-20> 통일관련 행사 개최 시기

응답내용	5~6월	7~8월	9~10월	11~12월	계
응답자 수	294	4	6	2	306
%	96.1	1.3	1.9	0.7	100

(9) 그 밖의 통일교육 행사(서술형)

<표 II-21> 그 밖의 통일교육 행사(서술형)

응답내용	영상자료 감상 및 소감 쓰기	토론대회	강사초빙수업	독서 및 독서 후 활동	계
응답자 수	14	10	9	8	41
%	34.1	24.3	21.9	19.5	100

5)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① 교사가 실제로 지도해 본 통일교육 프로그램 ② 통일교육시 가장 어려운 점 ③ 통일교육 연수에 대한 생각 ④ 통일교육 정책 추진처 ⑤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1) 현직 교사가 실제로 지도해 본 통일교육 프로그램(서술형)

<표 II-22> 현직 교사가 실제로 지도해 본 통일교육 프로그램

응답내용	역할놀이 수업	토론 학습	신문·잡지 활용 수업	시청각자료 활용 수업	계
응답자 수	7	6	9	5	27
%	26.0	22.2	33.3	18.5	100

(2) 우선적으로 지도해야 할 통일교육에 내용

<표 II-23> 우선적으로 지도해야 할 통일교육에 내용

응답내용	민족공동체 의식 및 동질성 회복교육	역사교육	언어교육	민주시민 교육	계
응답자 수	278	10	4	14	306
%	90.8	3.3	1.3	4.6	100

(3) 통일교육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표 II-24> 통일교육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응답내용	통일교육 내용의 한계	통일교육내용의 방향	시수 확보	자료부족	계
응답자 수	102	103	28	71	304
%	33.3	33.3	9.2	23.2	100

(4) 통일교육 수강 연수 여부

<표 II-25> 통일교육 수강 연수 여부

응답내용	연수를 받겠다	시간이 나면 받겠다	받지 않겠다	잘 모르겠다	계
응답자 수	50	176	45	35	306
%	16.3	57.5	14.7	11.4	99.9

(5) 통일교육 정책 추진처

<표 II-26> 통일교육 정책 추진 처

응답내용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통일연구원	기타	계
응답자 수	121	98	76	11	306
%	39.5	32.1	24.9	3.5	100

(6)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표 II-27>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응답내용	자료 확보 및 제공	교사의 인식 제고	시수 확보	교사의 연수 강화	계
응답자 수	118	102	62	24	306
%	38.6	33.3	20.3	7.8	100

6) 민족 통일에 대한 인식

우리 민족의 영원인 통일에 대하여 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① 교사가 생각하는 통일 형태 ② 햇볕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③ 6·15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 ④ 북한의 변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⑤ 북한의 변화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⑥ 앞으로의 남북 관계 전망 ⑦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 ⑧ 그 밖의 통일 및 통일에 관련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1) 교사가 생각하는 통일 형태

<표 II-28> 교사가 생각하는 통일 형태

응답내용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상태	남북이 현 상태에서 자유왕래가 이루어지는 상태	남북이 정치적·지리적으로 한 국가가 되는 상태	기타	계
응답자 수	151	115	35	5	306
%	49.3	37.6	11.4	1.6	100

(2) 「햇볕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표 II-29> 「햇볕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응답내용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	우리가 주는 만큼 얻어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보다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	계
응답자 수	60	53	175	17	305
%	19.7	17.4	57.4	5.6	100

(3) 6·15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

<표Ⅱ-30> 6·15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

응답내용	변화하고 있다	조금씩 변화하여 같 것이다	변화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계
응답자 수	20	190	83	13	306
%	6.5	62.1	27.1	3.2	100

(4) 북한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유

<표Ⅱ-31> 북한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유

응답내용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계
응답자 수	117	67	26	210
%	55.7	31.9	12.4	100

(5) 북한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

<표Ⅱ-32> 북한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

응답내용	체제유지를 위해서	남한에 흡수될까봐	동구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계
응답자 수	86	9	1	96
%	89.6	9.4	1	100

(6) 앞으로의 남북 관계 전망

<표Ⅱ-33> 앞으로의 남북 관계 전망

응답내용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하면 좋아질 것이다	우리정부가 일관성 있게 지원하면 개선될 것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한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계
응답자 수	27	84	184	11	306
%	8.8	27.5	60.1	3.6	100

(7)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

<표Ⅱ-34>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

응답내용	5년 이내	10년 이내	15년 이내	20년 이내	20년 이상	계
응답자 수	6	63	38	84	115	306
%	2.9	20.6	12.4	27.4	37.6	100

2. 실태 분석에 대한 논의

1) 바람직한 측면에서

첫째, 대부분의 교사가 남북한 이질성이 심화되지 않기 위하여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통일교육 시간은 연간 10시간 이내로 대부분 도덕(바른생활)시간을 이용하여 지도하고 있다.

둘째, 우선적으로 지도해야 할 통일교육 내용은 민족공동체의식 및 동질성 회복교육으로, 통일교육 지도 시에 가장 염두에 두고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료확보 및 제공, 교사의 인식제고, 시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을 할 때 신문·잡지, 인터넷·CD 등의 자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셋째, 「통일」 교재의 특징으로 남북한 생활상 비교와 민족 동질성 및 통일에 대하여 접근하였다고 보아 과거의 교육 내용에 비해 통일지향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 개선되어야 할 측면에서

첫째, 「통일」 교재가 바람직하게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사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은 활용할 시간이 확보되지 않거나 「통일」 교재가 교사용만 지급하였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일교재를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완할 것을 원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교사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보통 정도이며 통일연수 수강여부에서도 소극적이어서 앞으로 통일교육이 활성화되려면 교사의 관심을 높이고 통일연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수업형태는 교사 주도의 설명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 지도 방법이 개선되어야 함을 바라고 있다.

셋째, 통일교육 행사는 년 2~3회 정도로 6·25를 전후하여 글짓기, 그리기 및 포스터 그리기 등 극히 제한된 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정도이다.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통일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넷째, 통일교육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통일교육 내용의 방향과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어 통일교육의 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3) 북한의 변화 및 통일정책의 평가, 통일시기와 관련해서

첫째, 우리나라의 통일형태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상태를 생각하고 있으며,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금씩 태도가 변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서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교사들의 의식에서도 남남갈등의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햇볕정책은 여·야가 합의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아 정부의 일방적 지원보다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지원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북한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한 앞으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65%의 교사들이 20년 이상 걸린 것으로 보아 지금부터 통일교육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남북한 이질화가 더 심화되어 통일 후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Ⅲ.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1. 바람직한 학교통일교육의 개선 방향

1)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

(1) 교육과정에서의 개선 방향

첫째, 교과 통합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위상을 더욱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전반적인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 학교행사, 잠재적인 교육과정 등의 모든 학교생활의 측면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교육목표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환상적이지 않고 현실감 있는 교육과정 목표로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교육 내용에서의 개선 방향

기존의 정치 이념의 도덕 교육에서 벗어나 범교과 학습으로 확대하여 사회·문화 중심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어과, 사회과, 특별활동에서 북한관련 내용을 확대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3) 시수확보를 위한 개선 방향

도덕과 주당 시수를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여 지도하는 방안으로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시수를 조절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정된 정보화 교육 34시간을 년 17시간으로 하고 17시간을 통일교육 지도시간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다.

(4) 교원 연수의 개선 방향

연수비용을 지원하고 단기간연수로 강의식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다 현실적이며 체계적인 교원연수가 필요하다.

(5) 자료개발 및 제공

통일문제나 통일정책에 관련된 자료는 많으나 학교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에 적합한 자료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 흥미와 관심 등을 고려한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로 눈높이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비디오 테이프, CD자료, 그림, 사진, 관련 사이트 등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거나 이러한 자료를 개발하는데 교사들을 참여시키는 일도 바람직하다.

(6) 「통일」 교재 내용과 보급

「통일」 교재는 비교적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과 북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자료이다. 과거 통일교재와 비교하였을 때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바람직한 교재이며 교사들이 손쉽게 지도할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교사용만 지급하는 것보다 전 어린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통일교육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이산가족, 통일의 필요성, 통일 후의 생활, 민족의 동질성 등을 더 보완하여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

2) 지도 방법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

(1) 저학년을 위한 통일교육 지도 방법 -

- | | |
|-------------------|-------------------|
| ① 역할놀이 수업 | ② 통일지도 만들기 |
| ③ 편지글 쓰기 | ④ 그림이나 카드 만들기 |
| ⑤ 퍼즐게임 | ⑥ 통일 주사위 놀이 |
| ⑦ 노래가사 바꾸어 부르기 | ⑧ 만화 완성하기 |
| ⑨ 마인드 맵(Mind map) | ⑩ 시청각자료 보고 느낌 말하기 |

(2) 고학년을 위한 통일교육 지도 방법 -

- | | |
|---------------------|--------------------|
| ① 전문가 수첩 만들기 | ② 토론학습 수업모형 |
| ③ 탐구학습 수업모형 | ④ 개념분석 수업모형 |
| ⑤ 시사자료(NIE) 활용 수업모형 | ⑥ 가치갈등 수업모형 |
| ⑦ 미완성 문장 완성하기 | ⑧ 컴퓨터를 통한 사이버 통일교육 |
| ⑨ 가상 체험학습 | ⑩ 시청각 매체 활용 |

2.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1) 정부의 역할

통일교육은 가치개입적 교육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 단체나 기관마다 교사나 교수, 강사요원마다 잦대가 상이하기 때문에 혼돈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²⁾ 따라서 정부에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목표와 내용을 정비하여 「통일교육의 지침서」와 같은 기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어도 꾸준히 실시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준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을 위한 법과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여 일선교사들이 통일교육을 하는데 혼란이나 갈등이 야기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을 범교과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부분적 개편이나 교과내용을 새롭게 구성하는 일이며, 시간확보, 교사들에 대한 연수 및 자료제공에 대하여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2) 이근철·오기성(2000),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이해하는 통일교육론」 도서출판, p.336.

2) 학교의 역할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이 약화된 통일의식을 높이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장이 통일교육에 대하여 확고한 경영의지가 필요하다.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선정 및 행사, 체험학습에 대한 허가 등에 대하여 학교장의 재량권을 발휘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통일교육 환경조성에 힘써야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이 나름대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3) 교사의 역할

교사들은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통일교육을 접근해 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현실과 통일문제에 대하여 실감하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에게 통일의 당위성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생활중심에서 알고 싶어하는 내용으로부터 눈높이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사실 북한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은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하여 아는 정도이다.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업방법도 강의식보다는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어린이들이 활동중심에서부터 사고력을 높여 어린이들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교사 자신이 통일문제와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식견을 바르게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학교통일교육의 기본방향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교육에 대한 관점이 크게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변화는 새로운 관점으로 북한을 바라보게 되었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교류가 남북한 사이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사회·문화적 교류분위기에 맞물려 통일정책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거나 통일교육이 급격하게 바뀌어도 안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통일교육의 바탕은

첫째, 평화통일을 원칙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켜 나가야

하며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교육 내용은 그동안 상실되었던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 관습과 언어, 역사와 민족정신을 되살리는 민족 공동체 의식을 심어 우리는 한민족임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현시점에서 통일교육은 북한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만이 접근 가능한 것이다.

초등학생들에게 북한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웃의 이야기며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가 '같음'과 '다름'이 있는 것처럼 북한도 우리와 '같음'과 '다름'이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인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후에 통일된 한민족 국가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미래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지혜를 어렸을 때부터 터득하게 해주는 것이 일선교사들의 책임과 의무일 것이다.

중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 영 민
제주중학교 교사

- I. 머리말
- II. 통일교육의 개념
- III. 통일교육의 변천과정
- IV. 통일교육의 문제점
- V. 통일교육의 방향
- VI. 맺음말

I. 머리말

남북한 통일의 문제는 그 결과가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과 어느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합심 협력하여 추진해야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결합공급(jointness of supply)적인 특징이 있다. 또한 남북한 통일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우리 한민족의 염원을 달성하는 것이며, 더욱이 주변국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부효과(externality)적인 효용성도 내포하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 문제는 한민족의 내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환경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20세기를 마감하는 90년대를 전후하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소련 연방의 와해, 독일의 통일 등으로 세계 힘의 구조는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질서도 탈 이데올로기화하여 각 지역별로 경제 블록을 형성하며 경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역학 구조를 형성해 나아가게 되었다.

그 결과 한반도 주변 상황은 동북아 주변 4강이 상호간에 협력과 유대, 상호 의존을 통하여 안정화 구도를 택하고 있다. 이러한 안정 구도는 남북한의 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통일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는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는 가운데 최근 남북한간에는 경수로 사업, 금강산 관광, 남북 경협, 비료 지원, 차관급 회담, 농구 경기 대회 등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북한 잠수정 동해안 침투, 서해안 교전 사태 등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현재 독자적인 경제 희생 능력을 상실하여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 몇 천명에서 최대 30만~40만 명으로 추정되는 탈북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미사일 발사 실험 발표를 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다행히 베를린 북-미 고위급 회담의 타결로 미사일 발사 실험이 유예되기는 하였지만, 일련의 이러한 일들은 통일 논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통일교육은 이렇게 간단치 않은 한반도 상황을 전제로 한다. 냉전 시대의 이념적 대립, 경제 논리에 의한 국가간 경쟁 그리고 남과 북의 상황이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함에 따라 통일교육도 명칭이나 내용들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목표 설정이나 내용 선정 그리고 학습 방법 등에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경직된 사회 속에서는 획일적인 교수·학습이 관행화 될 수밖에 없었던 반면에 자율성, 다양성, 개방성, 합리성과 같은 가치들이 강조될 것으로 예견되는 21세기에는 유동적인 통일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수·학습이 요구된다.

따라서 통일교육도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 융통성을 발휘하여 통일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즉 통일교육은 세계적인 보편성과 한국적인 특수성이 조화를 이루고 민족 동질성의 추구하고 남북한 경쟁의 원리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에서는 우선 통일교육의 개념을 정리하고,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되었던 변화 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행해져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통일교육의 개념

통일은 일정 영역 내의 이산 집단 내에서 개개인간의 이해와 견해 차이를 평화적으로 조정하여 필요한 변경을 이룩할 수 있다는 믿음인 공동체 의식(sence community)이 구성원들 간에 형성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기대를 성취할 수 있는 기구가 제도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분단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규정될 수도 있다.

지리적 측면에서 분단은 단일 생활권 지역의 국민이 분할된 것, 즉 국토 분할을 의미하며, 통일은 분단전의 국토 생활권 영역으로 단일화되는 것, 즉 국토 통일을 의미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분단은 하나의 통치권이 존재하던 곳에 복수의 통치권이 존재하게 된 것, 즉 국권 분립을 의미하며, 통일은 단일 정권에 의한 한반도 통치, 즉 단일 정부화를 의미한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분단은 다른 체제 속에서 생활함으로써 생기는 생활과 의식상의 분열에 의한 사회 문화의 이질화, 즉 민족 분열을 의미하며, 통일은 생활 양식과 의식의 동질화, 즉 민족 화합을 의미한다.

결국 통일이란 국토와 국권 분할에 의해 형성된 이질적인 체제간의 대립과 경쟁이 장기화되면서 사회·문화 요소까지도 분열되어 있는 남북한이 다시 하나로 되는 국토 통일, 국민 통합과 더불어 민족 의식의 융합을 달성하여 새로운 통일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연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단순한 영토나 정권의 통합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까지도 융화되는 정신적 통합을 함께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볼 때, 통일교육이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인 평화 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된 국가에서 행복한 삶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모든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통일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내용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 그리고 통일 성취에 대한 현실적 장애와 위협 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가르쳐서 모든 국민이 균형 있고 합리적인 통일관을 형성하

여 이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 통일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지적 수준에 맞추어 통일의 당위성, 통일 의지의 함양, 합리적인 통일 방법의 검토, 통일의 조건, 통일을 위한 노력과 태도, 남북한 동질성 추구, 통일 조국의 미래상 등 통일을 준비하는 내용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내용을 함께 지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은 통일대비교육과 통일이후교육의 두 단계로 나누어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대비교육 - 통일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교육으로서 평화 공존 시대를 거쳐 통일을 이룰 때까지의 교육이다. 지금으로서는 국제 정세의 변화 및 남북한간의 대화 주이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태도, 사고, 가치관, 행동 규범 등을 습득케 하는 교육이다.

둘째, 통일이후교육 - 통일을 이룩한 이후 통일 국가를 완성하고 같은 민족으로서 동질화에 요구되는 적절한 지식, 태도, 가치관, 의식, 사고, 행동 규범 등을 이해하고 습득케 하는 교육이다.

결국 통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민족의 염원인 통일과 관련하여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진지하고 합리적·객관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추어 장차 통일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통일 이후의 삶에 대한 대비의 두 측면이 함께 다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우리의 생존과 체제 그리고 통일의 현실적 위협 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아울러 갖춘 균형 있는 통일 안목의 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Ⅲ. 통일교육의 변천과정¹⁾

우리의 통일 노력은 시대 흐름에 따라 국내외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모습의 통일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통일 정책 방향은 통일교육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많은 영향을 미쳤다.

분단 이후 1960년대까지는 통일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반공을 국시로 '선건설 후통일'을 표방함으로써 소극적 통일 자세로 일관한 시기이다. 학교 교육에서도 도덕 교육을 국정 교과서로 지정하여 반공 교육이

1) 통일교육의 변천과정은 교육내용에 의해 반공교육기(1948년~1980년대 중반), 통일안보교육기(제5차 교육과정), 통일교육기(1990년~현재)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연대별로 살펴보았다.

강화됨으로써 북한을 대결 상대로 규정, 적개심 고취에 주안을 두어 지도하여 왔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정부는 평화통일구상선언(70.8.15), 7·4남북공동성명(72.7.4),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73.6.23),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74.8.15)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북한을 선의의 경쟁 상대로 규정하고 남북한 상호비방중지, 신뢰 회복을 위한 문호 개방 등을 북한측에 촉구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그 동안 배양된 통일 역량을 바탕으로 북한 체제를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고, 남북 대화를 통해 통일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정책 전환과 '선평화 후통일'이라는 정책 기조 위에서 평화 통일 정책을 펴고 남북 대화를 추진하였다.

이 시기의 통일교육은 북한의 통일 정책 비판과 우리의 통일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국민 윤리 교육이 강조되고 통일 안보 교육의 지침서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는 북한을 대화의 상대, 같이 살아가야 할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관계 개선에 주력하였다. 이와 같이 남북한 대결 구조가 화해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그 동안 시대적·논리적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증대되었던 반공 교육의 개선이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 및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과 더불어 통일 의지가 조화를 이룬 새로운 국민 정신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6년부터 반공 교육이라는 용어를 통일 안보 교육으로 대체하고 제5차 교육 과정에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1990년대에 와서는 우리가 그 동안 이루어 놓은 경제 발전, 적극적인 북방외교 정책 등 눈부시게 성장한 국력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주도하게 되었다.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고 독일이 통일되는 등 통일에 대한 바람직한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6차 교육 과정에서는 통일 안보 교육을 다시 통일교육으로 개칭하기에 이른다.

이상에서 통일에 관련한 교육은 '80년대 중반까지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강도를 달리해 왔을 뿐 '반공 교육'으로 일관했고, '86년 5차 교육 과정에서 '통일 안보 교육'으로, 그리고 '92년 6차 교육 과정과 '97년 7차 교육 과정에서는 '통일교육'으로 점차 발전적 과정을 거쳐왔다고 볼 수 있다.

IV. 통일교육의 문제점

통일교육의 목적이 장기간에 걸친 교육 계획 하에서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이해력을 원리적이고 이론적 수준에서 배양하여 통일을 성취하는 삶의 방식을 터득하고, 장차 통일에 대한 논의와 의사 결정에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있다고 할 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교육이 되었느냐는 질문에는 많은 회의를 품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공 교육, 반공 교육, 멸공 교육, 승공 교육, 국방·안보 교육,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 이념 교육, 안보 교육, 국민 정신 교육, 통일·안보 교육 등 다양한 명칭으로 통일 관련 교육이 실시되면서 분단 고착화로 혹은 지나치게 안보 논리 차원으로 흐르지 않았느냐는 비판과 함께, 통일교육이 명확한 교육학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정책상의 고려에 의해 혹은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political selectivity)에 의해 실시됨으로써 이론적 체계나 교육 내용 및 방법상의 일관된 틀을 지니지 못한 채 그때 그때의 정치적 목표 구현에 동원되는 우를 범해 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과거의 통일교육이 지닌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통일교육의 명확한 지침이나 계획,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지도방법, 평가 그리고 통일교육의 지원 관리 체제 등이 일관되게 실시되지 못하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가는 임기 응변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동안 교육인적자원부와 통일부가 선정한 통일교육의 목표가 있어 왔지만 통일 문제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교육 또는 통일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내용까지는 다루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그리고 통일교육은 범교과적, 교과 통합적, 가치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덕과나 국민윤리과 혹은 사회과나 국사과의 특정 과목에만 편중되어 실시됨으로서 기대하는 만족한 성과를 얻기에는 부족하였다.

나아가 통일교육 내용을 다루는 특정 교과들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대부분 교과서의 마지막 단원에 집중되어 있어 학년이 거의 끝나 갈 무렵에나

다루어지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학습 평가가 종료되는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어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것에만 민감해져 있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더구나 국·영·수 위주의 주지 교과만이 중시되는 현재의 교육 풍토에서 도덕과나 사회과가 학생들에게 단순한 암기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도 통일교육의 성과가 미진한 것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게 사실이다.

분단국의 현실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교과목이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행적인 입시 제도가 노정환 주지 교과 위주의 학교 교육 풍토 속에서 통일교육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둘째, 기존의 통일교육은 지나치게 단선적이고 감정과 정의적 측면을 중심으로 교과 중심의 주입식 교수·학습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6·25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전후 세대들에게는 동기 유발과 흥미 유지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부감까지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북한 주민의 생활에 대한 교과서 분석을 위주로 한 한 연구에서는 교과서 속에서 기술된 북한 관련 내용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적대 감정을 갖기 쉽도록 부정적 측면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 유의하여 서술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 ① 북한 주민들은 상대할 수 없는 무서운 사람들이다.
- ② 북한은 공산당의 명령에 무조건적 복종을 하는 기계적인 인간을 만드는 일률적인 사회이다.
- ③ 북한은 도덕과 윤리가 존재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사회이다.
- ④ 북한 지도층의 주민 통제의 성과를 과대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교과서에서의 통일 및 북한 관련 내용과 이의 주입식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인식 대상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통일 의지를 길러주기 보다는 편향적인 사고 방식을 길러주기 쉬우며 통일 조국에 대한 두려움이나 비판적 인식을 고취시킬 우려가 많은 것이다.

더구나 통일에 대한 합리적 사고와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민주 사회적 기능들이 도외시 된 채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호소하려는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오히려 참다운 민족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장애가 되어 왔다.

셋째, 통일교육의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동안 남북한 문제나 통일교육의 내용을 제기할 때 우리의 주관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경우가 있었다. 공산주의 이론이나 공산주의 국가, 그리고 북한 내부의 문제를 지적할 때에도 제공자나 출처가 불명확함으로써 설득력이 부족하기도 하였다.

현행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북한의 현실 가운데 김일성 부자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부정적 측면만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인 북한을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언어 생활에서는 북한이 호전적이고 투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외래어의 이상한 표기법 등 우리와 의미가 다른 용어만을 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사회의 기준에서만 기술한 것이기에 타당한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우리말 표기가 가능한 용어들마저도 무분별하게 외래어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몰주체성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언어에 관한 한 오히려 훨씬 주체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긍정적 요소는 배제하고 부정적 측면만 제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북한을 지나치게 천편일률적인 사회로 본다든지 또는 북한 지도층이 요구하는 주장과 실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은 점 그리고 북한의 사회 제도나 생활 방식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평가를 하는 것은 실상과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초에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대응 능력과 태도를 함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일교육의 객관성을 저해함은 물론 오히려 이질감만 부추기는 것이다.

넷째, 통일교육이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장차 이루어질 통일 조국 속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할 민주 시민의 육성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북한 주민들과 상대했을 때 건전한 민주적 사고 방식을 동원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 역시 통일 조국 건설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볼 때 공산주의의 모순 점을 지적하면서 자유 민주주의의 우월성만을 강조해 왔을 뿐 민주 시민의 육성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다섯째, 일부 교사들의 사고 구조가 기존의 반공 교육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은 단편적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통일은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 행위의 산출물이며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참여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교육은 극히 경계하고 지양해야 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외에도 통일교육 담당교사들의 자질 함양을 위한 각종 자료와 연수 기회의 부족 그리고 통일에 관한 시사 자료 및 각종 시청각 자료 등 교수·학습 자료의 미비 등도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V. 통일교육의 방향

과거에 통일교육이 남북한 각각 상대방의 실태 파악에 있어 동질성보다 이질성이 강조되고 확인하는 내용으로 흘렀다면,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번영을 누리는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육으로 민족 통합 의식을 고취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체득케 하며 통일된 조국의 세계사적 역할과 지위 등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기본 인식 아래 다음과 같이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민족 공동체 의식을 적극 고취시키는 교육이어야 한다.2)

오늘날 남북한 관계 개선의 장애 요인은 외적인 요인보다는 민족의 이질화와 상호 불신이 더욱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내적인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통일 국가를 달성하는 과정에서는 적대감을 해소하고 남북한 주민이 민족 공동체의 성원으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통일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의식의 혼란을 극복하고 민족 공동체 속

2)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학생들의 북한 주민에 대한 민족공동체 의식은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1천 여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27.2%만이 '한민족'이라는 단일민족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을 우리 민족의 일부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의지를 보이고 있는 학생은 17.1%에 불과하고 북한 사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학생은 3.7%에 지나지 않으며 69.1%가 북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줄고, “중학생의 통일의식 조사 연구”, 『교육제주』(통권 96호, 제주도교육청, 1997), p.103.

에서의 삶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민족 동질성 회복 교육과 민족 공동체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민족 공동체 교육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역사, 전통, 문화의 재확인을 통해 남과 북에 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내재해 있는 적대 의식과 불신감을 해소하고 서로가 관용, 화합, 협력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함양하여 앞으로 이룩해 나아갈 민족 공동체 속에서의 이상적인 행동 양식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랜 역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 온 민족 공동체 의식이야말로 갈라져 있는 민족을 하나로 묶어 놓고 있는 바탕이며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당위이자 이를 보장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질화된 민족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공동체적 삶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은 더욱 절실하다.

둘째,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시키는 교육이어야 한다.

통일관은 남북한 통일에 대한 시각이요, 체계화된 견해이다. 대체적으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내면화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올바른 통일관이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다.

올바른 통일관을 가진 학생은,

① 맹목적인 민족 우월주의나 민족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발전에 장애 요소인 조국 분단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그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 참여하는 자세를 지닌 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국 분단의 역사적 배경, 그 중 특히 분단의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동시에 분단 이후 북한의 실상을 가급적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남북한간의 이질화의 실태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였는가를 파악하고, 또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자이다.

② 남북한간 이질화와 민족 상잔의 불행한 과거를 이유로 공동체 의식 형성에 회의감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남북한간의 민족적 동질성에 깊은 신념을 가진 자이다. 분단 반세기는 4천년의 기나긴 민족사에 비추어 매우 짧은 것과 문화·역사·관습·언어 등의 단일 민족으로서의 압도적인 동질성이 현존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남북한의 끈기 있는 노력에 의하여 공동체 의식을 뿌리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자이다.

③ 무조건적 감정적인 입장에서 통일만을 염원하는 자가 아니라, 통일의 당위성을 냉철하게 지적할 수 있는 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단과 대결로 우리 민족이 겪어온 고통과 손실, 그리고 통일을 이룰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다각적으로 분석 제시하고, 남북한은 물론 해외 동포까지 포함시켜 한민족의 발전과 그에 따른 영광을 달성해야겠다는 자각과 의지를 가진 자이다.

④ 통일 국가의 실현에 대하여 한반도의 변수만을 생각하는 좁은 시야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자이다. 통일을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과 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과 남북한의 국가 지도 이념, 통일 정책 등을 파악하고, 세계적인 변화 추세에 비추어 북한의 변화 방향과 변화의 필연성을 인식할 수 있는 자이다.

⑤ 통일 지상주의에 빠져 어떤 조건하에서도 통일만 달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와 타협의 한계를 알고 있는 자이다. 통일 국가 실현의 전제 조건으로 자주·평화·민주의 원칙과 인권의 존중, 삶의 질 고양 등 인간의 기본권은 준수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건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지닌 자이다.

⑥ 통일 국가를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국가와 그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지니고 있는 자이다. 통일 국가의 미래상을 그려보고, 그에 도달키 위한 과정 및 단계와 통일 후 통일 조국이 직면하게 될 많은 대내외적 난제들과 그 해결을 위한 준비가 어떤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자이다.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안보 의식과 이념 교육 위주의 분단 체제 지향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남북한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통일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통일 지향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통일에 대한 의지 및 사명감 등 정의적 측면만 강조하고 통일에 대한 태도나 의식의 밑바탕이 되는 체계적인 지식 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는 현행 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식의 바탕 위에 청소년들의 통일 의식 및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통일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남북한 통일에 관련된 제 문제들을 보다 정확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통일이 단순한 두 개의 정부 통합이라는 제도적인 의미 이전에 민

족사의 동질성 회복과 민족의 발전 즉, 당위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일을 강조하여 통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고히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민족 분단의 배경과 성격, 분단의 고통과 손실 등 통일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오늘날 국내외적 상황과 조건에 대한 정확한 시각과 체계화된 견해를 갖출 수 있도록 행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민주 시민 교육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환경 속에서 생활해 온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민주적인 생활 규범 등에 대한 교육으로서 통일교육의 바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사고 방식과 생활 양식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공통된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할 때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 결정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더구나 장차 통일 세대들인 청소년들은 통일 국가 속에서 책임 있고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통일교육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민주적 태도와 민주 시민적 자질의 배양은 통일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화합과 단결을 도울 수 있어 통일을 앞당겨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요건일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발생할 갈등을 해소하고 후유증을 극소화하는데도 크게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킬 때 통일 문제 논의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발휘하여 통일 관련 제반 사회 갈등의 성숙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남북의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환경 차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생활 습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해와 관용, 갈등 사태의 민주적 해결과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기반으로 할 때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통일 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고정 관념이나 편견을 없애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통일교육 현실을 돌이켜보면 비판적 사고의 함양은 거의 배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북한 사회의 모순이나 실상을 비판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지도는 하지 않은

채 무조건 비판적으로 사고하라고 강요하는 실정이다.

또한 학생들은 능동적인 입장에서 북한 사회나 공산주의 이념의 오류를 비판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봉쇄 당한 채 오직 교사 또는 교과서가 요구하는 문제의 구조화된 위계에 부합하여 대답하도록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실정을 감춘다든가 축소 평가를 하거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등의 흑평을 하여 단지 경계와 적대 의식을 일으키는 감정적인 차원의 교육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실정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장·단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객관적 이론을 바탕으로 북한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고정 관념이나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러한 편견 해소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고 동질성을 확보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열린 교육(open education)이 되어야 한다.

열린 통일교육의 수업 방법은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교육의 원리에 기초하여 진행해야 한다. 통일교육은 다양한 주장과 개방된 논의를 허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격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문제 사태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린 통일교육의 수업 목표는 민주주의 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세계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우리가 지향할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남북한의 차이와 현실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린 통일교육의 수업 내용은 교과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교과서의 지식에 고정될 필요는 없다. 통일교육의 내용은 북한의 현실에 관한 사실적인 정보, 통일 문제와 관련되는 시사 정보 등을 다양하게 다루기 때문에 교과서의 고정된 정보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과서 지식에 기초하여 변화하는 현실에 관한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융통성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린 통일교육의 수업 방법은 학습 주제를 학생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토론식 수업이 적절할 것이다. 학생들은 토의를 통하여 일정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학생들이 수집하고 탐독한 다음, 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여섯째, 교육 현장에서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와 통일교육 전담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입시 제도하에서는 통일교육의 획기적 개선이 한계가 있고 정책적 뒷받침 없이는 도덕·윤리, 사회 교과와 암기 학습 영역을 탈피하기가 어렵다는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난제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은 범교과적으로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입 위주의 일방적 강의 방식보다는 실증 사례 중심의 토의식 탐구 학습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분석, 종합,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한 체험적 통일 의식 함양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교과외 특별 활동을 활용, 「시사반」이나 「통일반」을 활성화하고 학교의 각종 교육 활동에서 통일 관련 주제를 반영시키는 것 등이 주요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밖에 학생들의 단체 활동, 현장 학습, 유적지 답사와 같은 활동에서도 통일교육 관련 주제를 교육 소재로 활용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립묘지, 현충원, 북한관, 통일전망대, 판문점, 임진각, 땅굴, 전쟁기념관 방문 등도 예로 들 수 있다.

아울러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VTR, OHP 등의 시청각 학습과 함께 Role Playing, Simulation Game 같은 모의 학습, 신문을 활용한 수업 (Newspaper In Education),³⁾ 가상 학습자료의 개발 보급 등도 필요하다.

통일교육 전담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통일 관련 연수 기회를 보다 확충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심화와 개발을 돕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9.2%가 'TV·라디오' 또는 '신문·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북한관련 자료와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대중매체에서 전달되는 내용이 서로 일치되고 상호보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줄고, 앞의 글, p. 102.

일곱째, 정보화 시대에 맞는 웹사이트·홈페이지의 개설 등 인터넷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통일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인터넷에 「사이버 통일교실」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컴퓨터를 통해 자발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언제든지 통일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민 PC」의 보급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은 이제 필수가 되었다.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VI. 맺음말

현 정부는 포용과 평화 공존 공영으로도 표현되는 대북 정책을 수립, 실천해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연방제 방식의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면서 우리의 포용 정책을 '흡수 통일을 위한 위험한 모략'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통일은 우리 모두의 염원임에 변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 이후에 탄생시켜야 할 국가를 만들어 이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 통일 세대들을 교육시키는 일 또한 현실 속에 직면하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과거에 통일교육은 체제 우월성 강조와 수세적 안보 논리에 치우침으로써 올바른 통일관 형성에는 오히려 역기능적이었다.

본고에서는 통일교육의 문제점으로,

첫째, 통일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에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둘째, 지나치게 단선적이고 감정과 정의적 측면에 치우쳤다.

셋째,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넷째, 민주 시민으로서의 육성에 미흡했다.

다섯째, 일부 교사들의 사고 구조가 반공 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교사 연수의 체계성 미흡, 연수 기회 부족, 연수 프로그램의 제한 현상과 통일에 관한 시사 자료 및 각종 시청각 자료 등 교수·학습 자료의 미비 현상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화해와 협력 시대 속에서의 새로운 통일교육은 불신과 대립 속에서 쌓아온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생동감 있고 탄력성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첫째, 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

둘째,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시키는 교육

셋째, 민주 시민 육성 교육

넷째, 고정 관념이나 편견을 없애는 교육

다섯째, 열린 교육

여섯째,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모색과 교사의 전문성 향상

일곱째, 인터넷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을 개선해야될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학과별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개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현행 교과별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확대하여 가급적이면 관련된 모든 교과를 포괄, 범교과적으로 취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즉, 교육 내용과 소재는 학생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 이해할 수 있는 생활 문화 중심으로 구성하고, 토론식 수업 모형의 확대 발전으로 열린 교육 방법을 통한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통일교육은 통일 이전과 이후에 살아갈 순기능적인 인간 즉, 통일 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 새로운 국가 건설에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인간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가르쳐 주느냐라는 내적 실천 정도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

이 광 일
오현고등학교 교사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침체상태에 빠졌던 남북관계는 지난 6월 서해 교전 사태와 북한의 핵개발 시인에도 불구하고 7~8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되어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공, 남북축구경기, 태권도 시범단 교환, 북한 경제시찰단의 입국, 상설 이산 가족 면회소 설치 등이 합의와 실천을 통하여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특히 부산 아시안 게임에 참가한 북한 선수와 응원단은 민족화해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획기적인 변화의 움직임들은 -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경제난을 타파하기 위해 사회주의 원칙 고수 아래 최대한의 실리를 도모하기 위한 「경제관리 개선지침」을 제정하고, 2002년 7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지정한 이후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발표(9.19), 일본 고이즈미 총리 방북(9.17)으로 역사적인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4개항의 「북·일 평양선언」을 발표 등 -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장미빛 소식으로 남북간의 관계 개선 및 평화 정착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늘 그래왔듯이 한반도의 제반 문제는 항상 순탄하게만 이어져 오지는 않았다.

지난 달 부산 다대포항에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자축하면서 인공기를 휘날리는 북한의 미녀 응원단들을 환송하고 격려해주며 돌아서는 순간, 북한은 북·미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또다시 남북관계에 난제로 작용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여러 가지 남북 개선의 과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변

국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이 한반도의 현실이며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통일 교육의 과제이기도 하다. 즉, 학교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남북관계를 예측하여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니 우리는 이런 자세와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학생들에게 말해주기가 어려운 것이 학교통일교육의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교통일교육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고민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특히 오늘 주제인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해 발표하신 차우규 연구위원께서는 7차교육과정 도덕교과 집필진으로서 통일교육에 탁월한 역량을 보였던 분으로 교사나 통일교육담당자가 학교현장에서 지녀야 할 이론적 접근이나 지도방법등에 대하여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토론자는 학교통일교육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 그동안 통일교육현장에서 궁금한 점들과 나름대로의 생각을 피력하고자 한다.

1. 학교 통일교육에서 느끼는 과제들과 본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제 쟁점에 대한 생각입니다.

첫째, 통일교육의 개념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서 통일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단순한 절충형 통일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 공동체의 통일 국가를 추구하려는 것임을 명백히 함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경직되게 강조하고 있다. 드러내놓고 흡수통일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경직된 통일방안의 강조가 상생과 공존의 통일 지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체제를 바탕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지니고 살아온 두 당사자가 통일을 추구하려면 양자가 공감

하는 부분을 먼저 내세워야 서로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남북한이 당장의 제도적, 법적 통일을 실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현재의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공존하면서 교류협력을 통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해 나간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교육의 개념은 통일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일된 이후의 국가체제를 쉽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민족 구성원 모두가 지향하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를 통일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한 통일교육의 개념을 설정하여 그에 따라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실적인 통일방안으로 공존의 통일을 보다 명확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수업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구조의 이중성 문제입니다.

상황의 이중성이란 통일문제에 탈냉전 조류와 냉전적 관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조의 이중성이란 통일문제가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이며, 현상유지의 문제이자 현상타과의 문제임을 뜻하고, 동시에 북한은 우리의 안보위협세력이자 평화통일 동반자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황과 구조의 이중성이라는 내재적 특징을 갖고 있는 남북관계를 올바르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균형적 인식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면서도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1) 북한에 대한 정의의 문제

북한은 우리에게 적과 동포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우리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하여 북한 지역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을 불법 집단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한 국가보안법을 운용하고 있는 한편, 제4조 통일 조항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여 남북간 화해 협력을 위한 노력의 대상으로 북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이중적 인식은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나타나는 딜레머이기는 하지만,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해온 그간의 통일교육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민족을 중시하는 한민족 공동체주의는 전체 사회분위기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현실로, '다름'과 '차이'에 대한 인정과 '더불어 살아야 할 대상', '공존'의 가치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혼돈과 갈등이라는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물론 정부는 '안보의 필요성'과 '화해 협력의 필요성'이라는 두 차원을 균형적으로 논의함으로써, 북한을 적의 모습에서 동포의 모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두려워하는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화해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2) 민족 문제와 국제 문제의 이중성

남북 통일 문제 해결의 주체는 남북한 당사자로서 7·4 남북공동성명에서도 '민족 자주 통일'을 명시하고 있으며, 6·15 남북 공동 선언의 제1항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한반도 정책은 서로 다르다. 각 국은 그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남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결국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이지만 주변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 적지 않은 변화와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반도에 미군이 상주하고 있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한반도의 남북관계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북한이 사실상 '선 핵포기'를 거부하고 미국과의 불가침조약을 제의하면서 한·미·일 3국은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며 국내외적 이중성의 문제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주변국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과 새로운 지역적 협력관계, 통일이후의 외교관계와 공동의 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분단 극복을 위해 우리 민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변국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들에 대해 상호 협력과 공영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셋째, 통일교육 교사의 인식과 교육적 자율성 문제입니다.

학교통일교육을 담당한 교사가 어떤 인식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체적 통일 교육의 내용과 자료의 선택, 교육의 방법이 달라짐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교육현장의 교사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그들이 의욕과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들 자신이 먼저 통일에 대해 신념화 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가치관과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최근 정부의 햇볕정책과 포용정책등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개인의 가치관의 차이와 남북 문제를 보는 인식의 차이에 따라 통일 교육을 담당해 온 관련교과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교과 교사들간에도 상당히 다른 입장을 경험하고 있다.

물론 우리 사회가 다원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당한 원인은 교사들에 대한 충분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체험 없이 일부 언론들의 관점에 따라 영향 받은 바도 크다.

교사들에 대한 통일 교육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그 교사들이 어떤 교재나 자료를 사용하고 어떤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교사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교육적 자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초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전달된 공문에 의하면 “최근 편향된 북한관과 통일관에 의한 일부 교사들의 임의 통일 교육이 우려되는 바, 각급 학교에서는 정부의 통일 교육 방향에 배치되는 임의 통일 교육이 실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다.

물론 현장에서 통일교육지침서에 안내된 자료를 활용하고자 노력하지만 어떤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애매할 수밖에 없다. 수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자료들의 출처는 대부분 통일부의 공식 자료들과 인터넷 등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자료들인데, 사이버 공간에는 수많은 북한관련 웹사이트와 통일관련 웹사이트들이 구축되어 있어 객관성과 임의성 시비는 항상 상존한다.

따라서 적어도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자료가 의도적 편향성을 지니

고 통일교육의 객관성이 저하되도록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균형적 입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한다면 교사들의 자율성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교사의 자율성에 대한 발표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통일부나 교육부의 제도적, 교육과정 운영면에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고, 교육현장의 교사들에게 통일 관련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난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민 253명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 그 성과에 대해 이 자리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일선 통일담당교사는 참가자 명단에 없었다.

넷째, 학생들이 통일과 통일 교육에 대한 무관심의 태도 문제입니다.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습자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때,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탐구는 현재의 학교 통일교육이 과연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통일이나 통일교육에 대해 무관심은 개인주의적 성향, 정치적 무관심, 민족문제에 대한 무관심 등의 요소와, 학생들의 현실적인 삶과 지나치게 유리된 학교통일교육의 문제, 그리고 학교의 통일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 등의 문제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남북한의 상반된 사상, 이념, 체제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통일 교육에서 벗어나, 민족의 동질성에 기반한 남북한이 함께 지니고 있는 문화와 전통을 부각시키는 교육, 체육활동 및 문화활동, 남북한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을 생생하고, 객관적으로 인식시키는 교육 등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통일 교육의 중심 내용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7차교육과정은 6차교육과정과는 달리 통일을 문화적으로 접근한다고 전제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따른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반도기를 흔들며 함께 입장하는 남북 선수단의 모습과 북한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 미녀들로 이루어진 북한 응원단의 신선한 모습들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의 태도는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의 모델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사이버 강의의 활용과 다양한 시청각 교재의 개발 및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은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남북관계의 진척에 따라 경의선과 동해선의 도로나 철도 등이 연결, 신의주, 개성, 금강산 등의 특구 지정으로 현장 방문의 기회를 확대하여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필요성을 실감있게 체험하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는 7년에 걸쳐 여름 방학 기간에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국토 순례 도보 행군을 실시했었다. 학생들과 함께 국토종단, 반도의 허리인 민통선 지역 횡단, 백두산 등정 및 두만강 인접(도문) 답사, 그리고 금강산 등정을 통해 우리의 현실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체험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다섯째, 아직도 통일교육은 정부정책의 홍보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학교통일교육의 전체적인 변천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남북관계의 부침과 이에 따른 국내적 상황의 변동, 국제관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초기에 실시된 반공교육(미군정기~제4차 교육과정기)은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멸공을 통한 통일을 추구해 왔으며, 통일·안보교육(제5차 교육과정기)은 북한에 대한 경계심과 동시에 동포애의 양면성을 부각시켰고, 화해·협력 시대에 알맞게 개편된 통일교육(제6차 교육과정기)으로 변화되어 왔다.

즉 통일교육의 내용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로 햇볕정책, 즉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교육이 주를 이루어 왔으나, 12월 대선 이후 만약에 정권이 교체될 경우, 향후 통일교육의 핵심내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전망하기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며, 이러한 일관성의 결여는 일선 통일 담당교사들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 다른 이유로 발표자의 주장처럼 우리나라에서 통일교육 문제는 그 동안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어서 이 문제를 잘못 건드려 정치적으로 곤혹을 치르게 되느니 이 문제를 피하고 보자는 통일 교육 전문가들이 소극성에도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정권에 관계없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표준 통일교육 교육과정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제이다. 학교급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내용이나 방법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통일교육의 성격과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정리하는 일은 통일교육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 남북화해·협력시대의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표측면에서 급변하는 남북관계에서 통일교육의 방향과 의미는 무엇인가?

남북화해·협력시대에 통일교육의 방향은 무엇보다 추상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통일교육, 당장의 통일을 '꿈꾸는' 당위론적이고 규범적인 통일교육보다는 사실상의 통일을 전제한 민족화해와 공존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즉 다른 사람의 생활방식이나 견해를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타인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삶에서부터 출발하여 50여년간 상이한 이념과 체제속에서 다른 삶을 영위해 온 사람들과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시키는 교육이다.

아울러 남북 문화, 의식, 생활방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외적으로 국제 협력을 유도하는 열린 민족주의 입장에서 통일의 상대인 북한을 무분별한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인 이해와 냉철한 판단 접근이 중요하다.

학교통일교육은 '통일' 자체를 가르치는 교육에서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즉 평화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평화 교육을 통한 '다름에 대한 이해'와 '평화적 분쟁해결 능력'을 길러주며, 학생들의 개별적 심리내면화를 통한 '통일 무관심'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공존교육, 정체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미래 통일을 위한 지향점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학교통일교육이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① 남북한 불신과 대결을 불식하고 평화정착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 ② 확고한 안보를 기반으로 남북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평화의식을 함양한다.
- ③ 남북한 신뢰회복과 상호이익 도모를 위한 화해·협력의식을 배양함

로써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에 대비한다.

- ④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주민의 생활상을 사실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이해시킨다.
- ⑤ 오랜 분단과 체제·이념의 차이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민족 동질성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통일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⑥ 민주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한다.

둘째, 내용측면에서 화해·협력시대에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체계는?

통일교육은 기존의 정치 이념적 접근에서 생활·문화적 이해교육으로 남북한 공동의 가치를 찾아내고 만들어 가는 교육내용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화해·협력시대의 남북관계와 통일환경을 고려한 평화·공존교육 강조하고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교육을 강화한다. 북한의 현실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합리적·생활체험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지리에 대한 특징과 아울러 그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상을 객관적으로 이해시킨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소개할 경우 주민들이 살아가는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실제적 삶의 내용을 사실 그대로 알려주고 이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사회·문화적 현실 및 주민들의 생활상을 남북한간 직접 비교를 통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수용 또는 비판의 관점을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남북한 화해협력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하여 이질적인 체제에서 살고 있는 두 지역 주민들이 하나된 의식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접촉과 대화, 교류와 협력의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분단의 폐해와 통일의 필요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 민족이 주도적으로 통일을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남북한이 모두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받기 위

해서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과 양측이 대규모 병력과 군사장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엄청난 규모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어 평화상태를 통해 남북한 모두에게 커다란 이익과 혜택을 안겨줄 수 있음을 강조하여 현실적인 우리들의 삶을 연결시키는 통일교육의 당위성을 구체화시킨다.

셋째, 방법적 측면에서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교육방법은?

시대가 변하고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교단 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각급 학교의 교실에 43인치 프로젝션 TV, 펜티엄 컴퓨터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도구들이 설치되었고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랜(LAN)선 설비가 끝남에 따라 이러한 교육 설비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방법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 교육은 OFF LINE 교육이 가지는 인적·시간적·공간적 한계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현 교육이 담아내지 못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이 가지는 교육적 장점을 살려 학교통일교육에서 학생들의 통일관련 수업의 흥미유발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ICT활용을 통한 다양한 통일교육방법이 시도되어야 한다.

쟁점중심의 통일교육 수업과 ICT 활용의 접목으로 기대되는 학습효과는 통일에 대한 쟁점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상이한 통일관의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고, 실시간/비실시간 대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토론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조율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의 형태로 여러 통일자료를 인터넷이나 정보통신을 통해 수집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교수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다른 학습자와 공유하고,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해서 지속적으로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을 신장 할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

근래에 사이버자료의 개발 및 보급 그리고 공유가 상대적으로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통일부 통일교육원 사이버 통일교육센터(uniedu.go.kr)나 교육인적자원부 사이트와 언론사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많은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탑재되고 있어, 교사의 관심에 따라서는 교육자료로 활용가능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제주도 교육청에서도 제주도에 초·중·고교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에 교육부의 인터넷 평화학교 (<http://tongil.moe.go.kr>) 사이트를 배너화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적극적인 통일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 통일교육은 각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이들간에 상호 보완성이나 연계성이 부족하기도 하다. 현재 사이트는 로그인을 통한 사이트 접속 방식이 아니므로 정기적인 회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회원들의 학습 진행 상황이나 발전 정도를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그에 따른 적절한 feedback을 줄 수 없는 사이트 구조이다. 또한 각각의 사이버 통일교육이 다른 것과 차별화 되는 특화(特化)가 부족한 형편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각 기관들 간에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 기관의 특화를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모색

황 미 나
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I.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모색의 필요성

지난 2000년 6월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6·15선언」은 지난 55년 동안의 남북간 대결 구도를 청산하고 화합과 협력의 분위기로 전환시키며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 시대를 여는 출발점을 마련해주었다.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교사로서 더욱 강한 통일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키우며 화해·협력의 분위기에 편승하는 새로운 통일 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지금까지 기울여 왔다.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북한을 경계의 대상과 화해협력의 대상으로서의 모습이라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해해야 하는 북한에 대한 정의의 문제,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며 이를 어떻게 교육현장에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폐쇄적 자주'로 나아갈 것이냐, 국제화에 부응한 '열린 자주'로 나아갈 것이냐의 민족 문제와 국제 문제의 이중성 등과 같은 풀어나가야 할 난제들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최근 6월의 서해교전, 10월 북한 핵 파문, 그리고 남북·해외 각 계층의 단일기 아래 공동 입장한 부산아시안게임 등 만감이 교차하는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견해조차도 교사들 간에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 적용하고 있는 통일교육은 7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으로서 6차 교육과정에서의 작년과는 또 다른 환경을 맞이함에 따라 현장교사들은 여러 가지 어렵고도 혼돈스러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이에 '통일교육의 제 쟁점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분의 내용 중 '현재의

북한을 언제나 변하지 않을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모습을 줄여나가고 동포의 모습을 키워나가는 실천적 노력이 남북관계에서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제 발표자의 말씀에 매우 공감하며, 현장교사로서 현 고등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실천적 의지와 노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통일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다져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먼저 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앙여자고등학교 1학년 중 총 10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2년 10월 21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6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은 지금 2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윤리 시간에 단원 구조상 가장 마지막 단원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받아 온 반면, 설문조사 대상이 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현재 주당 1시간의 도덕 시간을 통하여 단원 구조상 2학기 동안 통일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이므로 분명 통일교육의 환경 여건이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여기서는 교과시간을 통한 통일교육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이 토론자는 작년 중앙여자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1년 2월 1일 실시하였던 통일의식 설문 조사 결과와 이번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의식 조사결과를 비교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른 통일교육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파악하여 현 통일교육의 현황을 살피고 이를 통한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6차교육과정 적용 대상 고등학생들의 통일관과 북한관

다음은 고등학생들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앙여자고등학교 1·2학년 총 74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1년 2월 1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던 통일의식 조사 결과이다.

1. 고등학생들의 통일관

고등학생들의 통일관을 조사하기 위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통일의 당위성, 통일의 방법, 통일국가의 미래상,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통일의 주체세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65% 정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통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나 68%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음을 볼 때, 고등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와 태도는 다소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통일 예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응답자의 5%만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대다수인 72%가 상당한 기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견해가 있음을 보여 준다.

반면에 통일의 가능성이 적거나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13%에 이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23%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77%가 내용을 모르거나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북한의 통일 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해서도 역시 16%만이 알고 있다고 반응한 반면 대다수인 84%가 모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많은 고등학생들이 남북한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 방안에 대한 인지도가 무척 낮고 관심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2. 고등학생들의 북한관

고등학생들의 북한관을 조사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지식 정도, 북한 관련 정보 획득원, 북한 방문 의사, 북한 방문 희망처,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북한과 다른 나라와의 경기 등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응답자의 79%가 북한에 대하여 적게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북한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지식 정도는 낮은 수준이며, 북한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는 전체응답자의 대다수인 84%가 T.V나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얻고 있으며 반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만 11%에 그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88%가 방문을 방문하고 싶어하며 제일 가고 싶은 곳으로는 금강산과 백두산 등 명산이 39%, 북한 주민들의 생활 현장에 22%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보아 북한 주민의 생활상과 자연 등 북한에 대해 높은 호기심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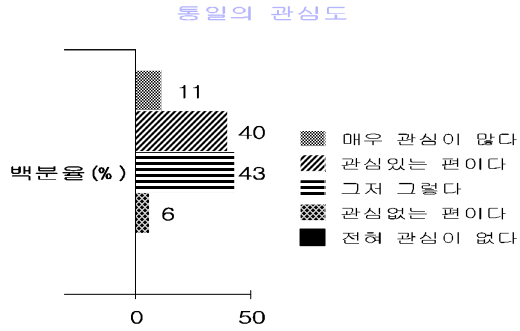
북한 사회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도를 보면, 북한 사회를 전체응답자의 19%가 같은 민족의 다른 국가로 보고 있는 반면 오히려 56%가 자유 없는 폐쇄국가로 보고 있으며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43%를 같은 민족으로 보면서도 49%가 불쌍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고등학생들이 일반 주민에 대하여 민족의식, 동료의식, 연민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Ⅲ. 7차 교육과정 적용 대상 고등학생들의 통일관과 북한관

1. 도표를 통해 본 현 고등학생들의 설문 응답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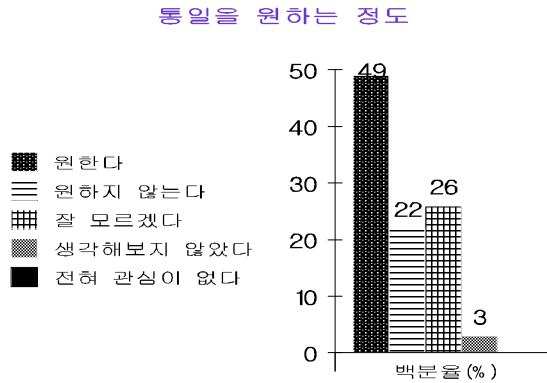
1) 남북한 통일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백분율 (%)
① 매우 관심이 많다	11%
② 관심있는 편이다	40%
③ 그저 그렇다	43%
④ 관심없는 편이다	6%
⑤ 전혀 관심이 없다	



2) 남북한 통일을 원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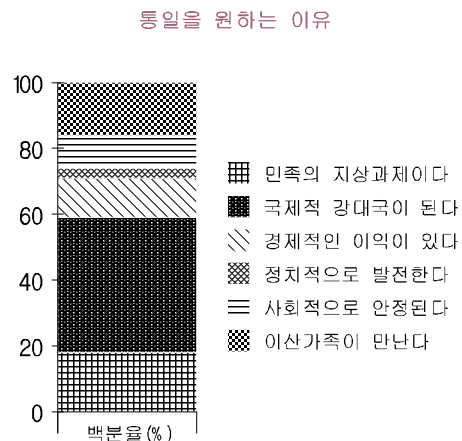
	백분율 (%)
① 원한다	49%
② 원하지 않는다	22%
③ 잘 모르겠다	26%
④ 생각해보지 않았다	3%
⑤ 전혀 관심이 없다	



3) (통일을 원하는 경우만)
=(49명을 대상)

통일을 원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백분율 (%)
① 민족의 지상과제이다	18%
② 국제적 강대국이 된다	41%
③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	12%
④ 정치적으로 발전한다	3%
⑤ 사회적으로 안정된다	10%
⑥ 이산가족이 만난다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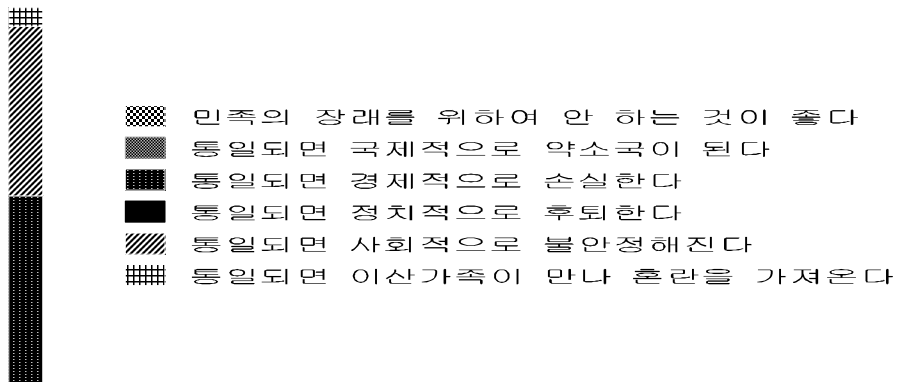


4)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경우만)=(22명을 대상)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백분율(%)
①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안 하는 것이 좋다	
②통일되면 국제적으로 약소국이 된다	
③통일되면 경제적으로 손실한다	50%
④통일되면 정치적으로 후퇴한다	
⑤통일되면 사회적으로 불안정해진다	45%
⑥통일되면 이산가족이 만나 혼란을 가져온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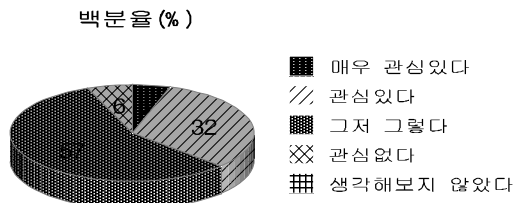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5) 북한에 대한 관심도는?

북한에 대한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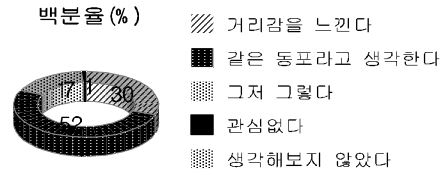
	백분율 (%)
①매우 관심있다	5%
②관심있다	32%
③그저 그렇다	57%
④관심없다	6%
⑤생각해보지 않았다	



6) 북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인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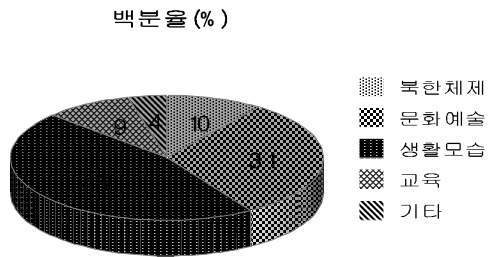
	백분율 (%)
①거리감을 느낀다	30%
②같은 동포라고 생각한다	52%
③그저 그렇다	17%
④관심없다	1%
⑤생각해보지 않았다	



7) 북한의 어느 분야에 특히 관심이 있으십니까?

북한에 대한 관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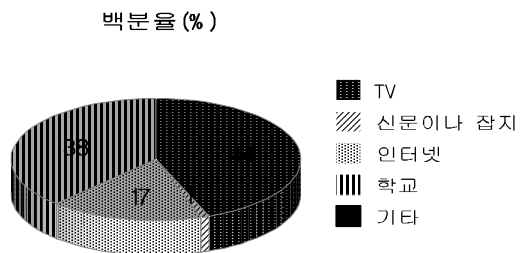
	백분율 (%)
①북한의 체제	10%
②문화예술	31%
③생활모습	46%
④교육	9%
⑤기타	4%



8) 북한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가장 많이 얻고있습니까?

북한정보 취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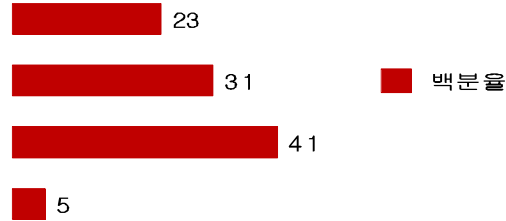
	백분율 (%)
①TV	44%
②신문이나 잡지	1%
③인터넷	17%
④학교	38%
⑤기타	



9)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정도

	백분율
① 아주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3%
③ 보통이다	31%
④ 잘 모르고 있다	41%
⑤ 전혀 모르고 있다	5%



2. 고등학생들의 통일관

고등학생들의 통일관을 조사하기 위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통일을 원하는 이유,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통일을 향한 통일과정의 속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남북한 통일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만이 관심이 없는 반면 51%는 관심이 높거나 43%는 보통의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남북통일을 원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49%만이 원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22%는 원하지 않거나 29%가 잘 모르거나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한다는 반응을 보인 응답자 49명중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국제적 강대국이 된다'는 점에 41%를, '민족의 지상과제이다'라는 점에 18%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22명 중 50%에 달하는 응답자가 '통일되면 경제적으로 손실한다'에, 그리고 45%가 '통일되면 사회적으로 불안정해진다'에 그 이유를 선택하고 있었다.

3. 고등학생들의 북한관

고등학생들의 북한관을 조사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관심도, 북한인에 대한 인식, 북한 관심 분야, 북한 정보 취득 방법, 대북 정책의 인식 정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북한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관심 없다'에 6%의 응답자를 제외하고는 94%가 보통 이상의 관심을 지니고 있었으며, 북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대해 52%가 '같은 동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30%가 '거리감을 느낀다'에 응답하였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46%가 북한의 생활모습에 관심이 높았고 다음으로 31%가 문화예술 분야에, 10%가 북한체제의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북한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38%가 학교교육에서 얻고 있었고 나머지 62%가 TV,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얻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 정도는 54%가 보통 정도 알고 있으며 나머지 46%는 잘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

IV. 설문 조사를 통해 살펴보는 학교 통일교육의 현황

1. 6차 교육과정 적용 학생들과 7차 교육 과정 적용 학생들의 설문 결과 비교

6차 교육과정 적용 학생들과 7차 교육 과정 적용 학생들의 설문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들의 통일관을 비교하여 보면, 전년도 학생(윤리 교과를 통해 6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은 현재 2·3학년 학생)들의 65%정도가 일상생활 속에서 통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금년도 학생(도덕 교과를 통해 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은 현재 1학년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는 '관심이 없다'의 6% 학생을 제외하고 대다수인 94%가 보통 이상의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전년도 학생들이 68%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금년도 학생들은 22%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반응과 29%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통일 정책 및 대북 정책에 대한 인지도면에서 비교해 보면 전년도 학생들이 84%가 모른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금년도 학생들의 경우 46%가 잘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금년도 학생들이 전년도 학생들에 비해 29%가 높은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을 원한다는 반응도 전년도 학생에 비해 18%가 높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남북한의 통일 정책이나 방안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작년도 학생들이 84% 모른다는 반응에 비해 금년도 학생들

이 46%가 모른다는 반응을 보여 인지도도 높아졌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여전히 22%가 통일을 원하지 않거나 29%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통일되면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거나 사회적으로 불안정해진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어 이들에 대하여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와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방법과 노력 그리고 통일 대비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통일교육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고등학생들의 북한관을 비교하여 보면, 금년도 학생들이 전체응답자의 94%의 응답자들이 북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 관심 중 46%가 북한의 생활모습에 그리고 31%가 문화예술 분야에 두고 있으며 북한을 52%가 같은 동포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전년도 학생들은 22%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 현장에, 그리고 39%가 백두산과 같은 명산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43%가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금년도 학생들이 역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높을 뿐만 아니라 같은 동포임을 느낀다는 반응도 전년에 비해 높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 금년도 학생들이 38%를 학교교육에서, 62%를 대중매체에서 얻는 반면 전년도 학생들은 학교교육에서 11%를 그리고 대다수인 84%가 대중매체에서 얻고 있음을 볼 때 학교교육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 통일교육에 있어서 긍정적 변화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한 학교 통일교육 환경의 긍정적·부정적 여건 고찰

위의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하여 작년도 학생들과 금년도 학생들의 통일 의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의 요인을 학교 교육 현장이라는 환경 속에서 학교 통일교육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건과 부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을 고찰하여 학교 통일교육의 현황을 이로서 대변하고 나아가 학교 통일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 학교 통일교육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건

- ① 도덕 교과서의 구성 : 금년에 와서 새롭게 접한 도덕 교과서는 크게 2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한 대단원이 통일에 관한 내용

으로 한 학기 동안 가르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6차의 윤리 교과서가 상당한 교육량과 대다수 주입식 방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 구성과 달리 7차의 도덕 교과서의 구성이 축소된 교육량, 읽기자료 활용, 함께하기 활동 등의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내용과 학생 중심의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는 학습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어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불러일으키는데 전차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통일 및 북한 관련 자료의 다양화와 개방화 : 과거에 비해 통일 및 북한 관련 자료가 풍부하고 개방화되어 있다. 인터넷, 신문, TV 등 대중매체의 영향과 각종 기관 및 단체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들의 노력이 증대되면서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고 이전과는 다른 서로의 자료를 공유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모습을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최근 뉴스, 북한 주민의 생활 모습, 만화, 영화, 노래 등의 동영상을 수업에 활용하면 대단한 관심과 호응도를 보이는 학생들의 모습을 바로 찾아볼 수 있다.
- ③ 다양한 수업매체 활용한 학생 중심의 수업 전개 : 금년에 저희 학교에 만들어진 ICT 교실은 비디오, 동영상, 인터넷 등 다양한 수업매체를 활용할 수 있고 개인별 및 조별 수업을 단원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어 일반 교실 환경보다 학생 중심의 수업을 전개하는데 유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작년까지 학생 중심의 수업에 비해 교사 중심의 지식 전달 위주의 주입식 수업 방식에 비중을 두어 전개해 온 수업을 접한 학생들보다 학생 중심의 수업에 익숙한 금년 학생들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의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설문 결과를 통해 살펴 볼 수 있었다.
- ④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시간을 통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열린 교육과정 운영 여건 : 6차 교육과정에 비해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교과시간에 부족한 통일교육을 더욱 보충,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교육과정상 열려 있다는 점은 통일교육에 긍정적 환경이라 할 수 있다.

나. 학교 통일교육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건

위에서 제시한 학교 통일교육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많은 변수들을 제외한 학교 현장의 환경이라는 부분적 요인만을 놓고

검토한 것이라 이것들만으로 학생들의 통일의식에 상당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단정하기엔 다소 시기상조이며 일부분을 보편화시키려는 오류를 범하는 일이라 하겠다. 과거에 비해 분명 통일교육 환경은 변했고 변하고 있으나 아직도 긍정적 여건보다 우리가 넘고 넘어야 할 어려움과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정신적 신념은 짧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확립된 신념을 실천 의지에 의해 행위로 표출되기까지는 지속적인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7차 도덕 교과서의 구성이 축소된 교육량, 읽기자료 활용, 함께하기 활동 등의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내용과 학생 중심의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는 학습방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일에 관한 내용으로 한 학기 동안 가르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고교 시절 동안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3년 중 불과 1학기에 지나지 않는다.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난 후 지속적으로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7차 교육과정에서 주당 1시간의 도덕 교과 시간은 심도 있는 교육을 하기엔 수박 겉핥기 식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고등학교에서 교과 시수 조절과 교원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되는 교과 재량활동이나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은 통일 관련 교과에 배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입시 위주의 주요 과목에 배정된다. 입시교육에 중점을 둔 학교 현장은 통일관련 특별활동이나 교육활동에는 관심이 결여되어 있고 학생들의 활동시간도 대단히 한정적이다. 또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시 위주의 교과목을 중시하는 의식도 통일교육을 전개하는 데 상당히 부정적 요인이라 하겠다.

학생 중심의 활동과 다양한 수업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ICT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익명의 학부모님으로부터 주당 1시간짜리 도덕만한 교과목까지 ICT수업이니 뭐니 하면서 이동수업을 해 자녀가 무척 힘들어 한다면서 항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학생 또한 자신들이 직접 탐구활동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칠판 수업을 통해 학습내용을 판서해 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수월하다는 생각을 선생님에게 피력하는 학생도 찾아볼 수 있다.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의 상을 마련해 주어도 맛이 없다며 먹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 아이에게 어떻게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어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북한에 대한 공개성과 개방성이 완전히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게다가 아무리 과거에 비해 자료의 개방화가 되

고 다양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료를 이용한 수업 내용의 재구성은 교사의 주관성을 반영하므로 보는 사람에 따라 내용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편파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자료의 중요성, 필요성, 효용성, 타당성 등의 측면에서 검증된 객관성을 지닌 자료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며 앞으로 더욱 개발되어야 함을 암시하여 준다.

V.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에 대한 조언

지금까지 고등학생들의 통일의식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바람직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요인을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 요인들은 더욱 강화해 나가고 부정적 요인들은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분명 통일교육을 통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하여 본 토론자는 이에 위에서 살펴본 통일교육을 전개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조언함으로써 이 발표를 마무리하려 한다.

먼저, 도덕교과를 통한 통일교육의 수업시간 확보와 통일관련 내용의 입시반영 비율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의 당면과제인 통일과 바람직한 인간성 함양의 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과목은 역시 도덕교과이다. 통일과 북한 관련 지식은 범교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나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실천 의지와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 등 정의·태도면에서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과는 무엇보다 도덕교과인 것이다. 도덕교과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면서 교육과정상 4~8단위 이상의 교과시간과 재량활동 시간까지 확보한 국어·수학·영어 과목에 비해 도덕 교과 시간은 2단위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학교교육의 핵심은 수업이다. 아무리 통일의 당위성을 소리 높혀 강조하여도 수업을 통해 확보되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에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도덕 교과 시간 증대와 재량활동 시간의 확보, 통일 관련 내용의 입시반영 비율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각종 모의고사에서의 출제 비중 증대를 통해 그 중요성을 공식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교육기관 및 단체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연계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멀티미디어 수업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교과실을 마련

하여야 한다.

앞서 통일에 대한 실천의지와 확고한 가치관의 내면화를 위해서는 교사 중심의 주입식 수업 보다 학생 중심의 수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설문 조사 결과 살펴볼 수 있었다. 비디오, 동영상, 인터넷 등 다양한 수업매체를 활용할 수 있고 조별토의수업, NIE 수업 등 학생 중심 활동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다기능 교과실을 마련할 수 있는 재정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의 다양한 통일 관련 행사와 그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최근 부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하여 한층 국민들 사이에 남북한 한민족 공동체 의식이 고양되어 있다. 이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여 교과시간 이외에도 그 분위기를 이어 나간다면 어느 때보다 통일교육의 효과는 높을 것이다. 1년 행사로 '한마음 한가족 통일마당'과 같은 전일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직접 꾸며보는 북한 음식 장터, 북한 놀이 체험, 북한 영화 상영, 북한 교과서 전시 등의 행사는 공부로 인해 정의적으로 메말라 가는 학생들에게 여유로운 시간적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짧은 시간속에서도 높은 통일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위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는 초·중학교가 점차 그 수가 늘어가고 있다고 하나 고등학교는 극히 미비한 상태이다. 진정 통일이 민족 당면 과제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학교 현장이 되어야 한다. 이는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학교장 및 교사의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학교 교육 계획과 실천, 재정적 뒷받침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활성화 될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통일교육자료의 제작과 이를 뒷받침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예산 지원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부 록

- 통일교육지원법
-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統一教育支援法

制定 1999·2·5 法律第5752號

第1條 (目的) 이 법은 統一教育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統一教育"이라 함은 國民으로 하여금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信念과 民族共同體意識 및 健全한 安保觀을 바탕으로 統一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價値觀과 態度의 涵양을 目的으로 하는 제반 教育을 말한다.

第3條 (統一教育의 基本原則) ①統一教育은 自由民主의 基本秩序를 守護하고 平和的 統一을 지향하는 方向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統一教育은 개인적·파당적 目的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第4條 (統一教育基本計劃의 수립) ①統一部長官은 統一教育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統一教育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統一教育의 基本方向 및 主要內容
2. 統一教育 실시와 관련하여 各 部處 및 各 機關·團體의 協助에 관한 사항
3. 統一教育要員 및 統一對備要員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統一教育實態의 調查·評價 및 是正에 관한 사항
5. 기타 統一教育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統一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함에 있어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統一教育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第5條 (統一教育審議委員會의 設置) ①統一教育에 관한 基本政策 기타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統一부에 統一教育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의 委員長 1人 및 副委員長 2人을 포함하여 2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委員會의 委員長은 統一部長官이 되며, 委員은 統一部長官이 任命한다. 다만, 委員중 6人은 國會議長이 추천하는 者로 한다.
④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委員會로부터 위임받은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實務委員會를 두며, 實務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 (政府의 임무) ①政府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統一教育의 실시, 統一問題研究의 振興, 統一教育要員의 양성·지원, 教材의 開發·普及 기타의 방법으로 統一教育을 활성화한다.

②政府는 統一教育을 실시하는 者(法人 또는 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豫算의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7條 (統一教育의 반영)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 教育訓練機關 및 大統領令이정하는 社會教育機關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教育訓練課程에 統一教育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8條 (學校에서의 統一教育振興) ①政府는 初·中等學校에서의 統一教育의 振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大學 등 高等教育機關을 設立·경영하는 者에게 統一問題와 관련된 學科의 設置, 講座의 開設, 研究所의 設置·운영 등을 勸獎할 수 있다.

第9條 (統一教育受講의 요청 등) ①統一部長官은 統一教育을 실시하는 者, 南北 交流·協力事業에 종사하는 者, 統一對備業務에 종사하는 者 기타 統一教育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에게 統一教育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統一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一教育對象者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그가 소속하여 있는 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10條 (統一教育協議會) ①統一教育을 실시하는 者는 統一教育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協議·調整 기타 상호간의 協力增進을 위하여 統一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統一教育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協議會의 組織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告發) 統一部長官은 統一教育을 실시하는 者가 自由民主의 基本秩序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統一教育을 실시한 때에는 搜查機關등에 告發하여야 한다.

附 則

이 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제정 1999· 8· 6 대통령령제16501호
개정 2001· 1· 29 대통령령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 1· 29 대통령령제17116호(여성부직제)

제1조 (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일교육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노동부차관· 여성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과 국무조정실소속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6인
3.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 1인씩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 ①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통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노동부·여성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소속 실·국장급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제10조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경비의 지원 등)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지원대상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일교육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통일교육시행에 필요한 비용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수행능력,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계속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 (통일교육의 반영) ①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원연수기관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호의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1시간 이상
2. 3월 이상 6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2시간 이상
3. 6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 3시간 이상

제15조 (통일교육협의회)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통일교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